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BY: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593

2008년 8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색의 상징성과 우리말 표현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혜 원

색의 상징성과 우리말 표현 연구

A Study on the Symbolism of Color and Color Words in Korean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혜 원

색의 상징성과 우리말 표현 연구

지도교수 김 종 경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4월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혜 원

김혜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2

제1장 색채 심리와 전통성 ····· 3
제1절 동양의 색채관과 음양오행설 ····· 3
1. 음양오행사상 ····· 3
제2절 오색의 상징과 의미 ····· 8
1. 상징의 개념 ····· 8
2. 빨강(赤色)의 상징 의미 ····· 9
3. 파랑(靑色)의 상징 의미 ····· 12
4. 흑색(黑色)의 상징 의미 ····· 14
5. 백색(百色)의 상징 의미 ····· 15
6. 노랑(黃色)의 상징 의미 ····· 17
제3절 서양의 색채관 ····· 20
1. 고대 색채의식 ····· 20
2. 종교의 색채의식 ····· 23

제2장 한국의 역사에 나타나는 색채의식 ····· 26
제1절 선사미술과 삼국시대의 건국신화 ····· 26
제2절 한민족의 역사적 색채의식 ····· 29
1. 삼국시대 ····· 29
2. 고려시대 ····· 33
3. 조선시대 ····· 36

제3장 한국의 색 이름체계 ····· 39
제1절 색 이름의 중요성 ····· 39
제2절 이론적 체계 ····· 40

1. 한국산업규격(KS)····· 40
2. 한국색채연구소(KCRP, Korea color research institure)····· 43
3. 미국의 ISCC-NBS의 색명법····· 44
4. 색의 삼속성과 먼셀 표색계····· 49
가. 색상(色相, Hue)····· 49
나. 명도(明度, value)····· 49
다. 채도(彩度, chroma)····· 50
라. 색입체····· 50
마. 먼셀표색계····· 51

제4장 우리말 색채어 표현····· 53
제1절 우리말 색채어의 개념····· 53
제2절 우리말 색채어 표현 설정····· 54
제3절 색채어 분석····· 62
1. 붉다····· 62
2. 검다····· 62
3. 희다····· 64
4. 누르다····· 65
5. 푸르다····· 66
제4절 색 속성에 따른 의미 특성····· 68
1. 붉다····· 68
2. 검다····· 69
3. 희다····· 71
4. 누르다····· 72
5. 푸르다····· 72

결 론····· 82
참고문헌····· 85
저작물 이용허락서

【표목차】

[표 1] 음양오행사상…… 6
[표 2] 고대 나라마다 다른 방위색…… 21
[표 3] 고대 나라마다 다른 색의 상징…… 21
[표 4] 유채색·무채색의 기본색이름…… 42
[표 5] …… 43
[표 6] …… 43
[표 7] 색상기호와 색상수식어…… 46
[표 8] 톤기호…… 47
[표 9]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56
[표 10] ㅏ : ㅓ음소, ㅗ : ㅜ음소, ㅐ : ㅣ음소…… 56
[표 11] 색채어의 뜻…… 57
[표 12] 기본 오색의 색채어…… 57
[표 13] -숙숙-, -속속-, -슥-…… 58
[표 14] 접미사에 쓰이는 색채어…… 59
[표 15]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접미사…… 60
[표 16] 계열에 따라 쓰이는 색채어…… 61
[표 17] 다섯 색채어의 합성법…… 67
[표 18] 가. 명도…… 68
[표 19] 나. 채도…… 69
[표 20] 가. 명도…… 69
[표 21] 나. 농도…… 70
[표 22] 다. 선명도…… 70
[표 23] 3. 희다 …… 71
[표 24] 4. 누르다…… 72
[표 25] 5. 푸르다…… 72
[표 26] 붉다…… 73
[표 27] 검다…… 75
[표 28] 희다…… 77
[표 29] 누르다…… 78
[표 30] 푸르다…… 80

【그림목차】

[그림 1] 방위체계도 ····· 7
[그림 2] 정색과 간색의 관계 ····· 7
[그림 3] 마호메트 ····· 22
[그림 4] 최후의 만찬 ····· 23
[그림 5] 라파엘로의 성모상 ····· 24
[그림 6] 프라안젤리코의 수태고지 ····· 25
[그림 7] 알타미라 동굴 벽화와 라스코 동굴 벽화 ····· 26
[그림 8] 삼국시대의 의복 ····· 32
[그림 9] 강서대묘의 사신도 ····· 33
[그림 10] 고려청자 ····· 34
[그림 11] 고려의복 ····· 35
[그림 12] 백자 ····· 36
[그림 13] 단청 ····· 36
[그림 14] 조선시대의 의복 ····· 38
[그림 15] 음식의 오방색 ····· 38
[그림 16] 20색상환 ····· 43
[그림 17] ICSS-NBS색상 수식어 배열 ····· 48
[그림 18] ICSS-NBS의 컬러 시스템 ····· 48
[그림 19] 명도·채도 ····· 49
[그림 20] 색입체 ····· 51
[그림 21] 먼셀색상환 ····· 51
[그림 22] 전통색의 톤 분류 ····· 68

Abstract

A Study on the Symbolism of Color and Color Words in Korean

Hye-won Kim
Advisor : Prof. Jong-kyoung Kim Ph.D.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Each country has developed its own distinctive view on colors due to its natural, geographical, ethenic and customary differences. Korean view on colors is also unique. Colors introduced from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traditional ones have been permeating our life. However, though there are many colors, some of the colors are not suitable for us and perceived by us. We are exposed to many colors as more information is provided, but we can not remember them easily if we do not know the names. To be more familiar to the names of colors, we revised the names.

Colors are derived from complex cultural structures and a social phenomena. No color exists alone beyond culture and history. Colors are closely related to man. The murals of Altamira or Lascaux are colored to give more vivid expression. Their colors are made through natural dying and the mural which has a meaning of sorcery has become a language, sign and symbol because of colors.

Our people have been influenced by symbolism of colors and sorcery based on the Five Elements Theory from the ancient Orient, and have developed artistic senses on colors through long history, shamanism, Buddhism, and Confucianism. For the murals at the Three Kingdoms of Korea, Gogyryeo

showed strong spirit, Baekje elegant and gentle beauty, and Shilla colorful magnificence. In Goryeo period, magnificent Buddhism flourished as it was the society led by nobles while Joseon period focused on natural simplicity and temperance. Such characteristics influenced the views on colors and each period showed the following views on colors: In Three Kingdoms of Korea, natural and light colors were mainly used, and the views on colors symbolizing the five directions, and colorful and magnificent colors appeared; In Goryeo period, the view on colorful colors appeared due to Buddhism; In Joseon period, naturalism, the view on colors based on the Five Elements Theory, and temperance and simplicity emphasizing light and natural colors appeared.

It was found that the view on colors was mainly influenced by the Five Elements Theory and our life is connected with the Five Elements Theory. The concept of transitional colors followed the Yin and Yang theory using five pure and compound colors as bases. It was shown in all the history in clothing, food, architecture, shamanism, Buddhism, and mythology.

It appeared in our language. It had a great influence on creation of the Korean script: from basic five colors such as red, black, white, blue and yellow, more colors were created. There are color words such as pure white, bluish, dark blue, pure blue, pure yellow, yellowish and dark yellow. Though there are many outstanding color words in Korean, it is hard to decide which color should be used as a standard for' deep red and dark red. For people think differently about the color of concept. To overcome the difference, substitute color words for remembered or officially-used names of colors, refer Munsell color system to mark signs according to properties and we can remember the colors easily.

서 론

1. 연구의 목적

동양 문화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으로 나뉘어지고, 다른 나라의 문화들도 각기의 특색을 가지고 발달하였다. 또한 전통적 정신을 이어받아왔다. 음양오행사상의 바탕으로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았으며 긴 세월동안 한국의 독창적인 색채의식을 갖추게 되었다.

음양오행 사상은 생활 곳곳에 나타나며 오방색을 중심으로 색 언어체계에서도 보여진다. 한국산업규격에서 관용색명을 2003년도에 다시 제정하였지만, 우리말 색채어에서 불러지는 색이 어느 정도의 색일 것이라는 추정만 하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인간 문화 속에 색은 어떠한 사물을 인지할 수 있고, 상징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무수한 색채의 홍수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근래 외국의 문화만을 받아들여 한민족이 받아들이는 색이 약간의 차이가 나면서도 외국의 색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인지하지 못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상생활에서 색의 수 많은 표현을 색 이름으로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일상 언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색채형용사인 '불그스레하다, 하얗다, 누르스름하다' 등은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단일어의 수는 적으며 복합어나 파생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우리말은 감각어가 발달했다. 우리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풍부한 감각어의 발달이다. 특히 색채어는 다채롭게 분화되었다. 색채어가 많은 것은 색이 우리 문화 속에서 녹아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 속에서 쓰이는 고유의 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색을 인용하여 쓰이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의 정서상 맞지 않는 색을 접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하게 발달한 색채형용사를 체계화한다면 색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본 색채'흑(黑), 백(白), 적(赤), 청(靑), 황(黃)'인데, 이러한 색채가 어떻게 한민족의 색채관이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양오행사상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한민족의 색채의식을 알아보고자한다.

둘째, 각 오색의 상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한다.

셋째, 다른 나라에서는 색채의미가 무엇이고 색채의식이 다른 점을 비교해 보고자한다.

넷째, 우리말 색채어는 5가지 색을 중심으로 '붉다, 검다, 희다, 누르다, 푸르다'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이루어 졌으며 색 속성에 따라 명도, 채도, 선명도 등을 나누고, 한국산업규격에 맞추어 분석하고자한다.

2. 연구 방법

기본 색채인 '흑(黑), 백(白), 적(赤), 청(靑), 황(黃)'이 나오게 된 배경인 우주관의 사상인 음양오행사상에 대해 살펴보고 한민족이 어떠한 의식을 바탕으로 색채를 역사적으로 생활 속에서 사용하였는가에 대해 문헌 및 각 시대별로 나눈다. 다른 나라들의 종교적 색채관에 대해 기술하여 보고 각 오색인 '흑, 백, 적, 청, 황'의 색의 상징의미를 알아보자한다.

색 이름의 중요성과 먼셀표색계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산업규격과 한국색채연구소, 미국의 ICSS-NBS에 대해 살펴보고 색의 삼속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색채어 개념과 각 오색의 어원을 살펴보고, 파생법과 합성법이 발달한 색채어에 대해 알아보고, 색채어 표현 설정을 하여, 색 속성에 맞게 명도, 채도, 선명도를 색채어의 색의 차이나, 어감에 따라 분류하였다. 명도는 명도(明)으로 하여 +明, -明, 채도는 +맑음(純), -탁함(純)으로 하고, 농도 +淡, -淡, 선명도는 선명(鮮明)을 +鮮明, -鮮明으로 하였다.

한국색채연구소의 「우리말 색이름사전」을 참고하여 우리말 색채어와 기본색이름과 계통색명, ICSS-NBS의 색명을 비교· 분석하고 3속성을 표시하여 기호화한 것을 표로 작성하였다.

제1장 색채 심리와 전통성

제1절 동양의 색채관과 음양오행설

동양의 색채관은 고대 동양의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각각의 나라들은 자연지리적 환경, 풍습, 문화로 인해 독창적으로 발전했다. 동양문화 속에 중국, 일본 등 같은 뿌리에서 시작 되었지만,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전통색채는 음양오행을 주축으로 자연주의, 불교, 유교, 실학의 영향을 받았다.[1)]

전통색채를 알기 위해서는 시대별로 어떤 색채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동양의 색채관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사상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

동양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음양오행사상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일원론적 사상을 심어주었으며 BC.300~200년경 고대 중국의 전국시대에 혼란을 피해 조선으로 넘어온 피난민과 망명객을 통해 한반도의 서북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은 우주의 자연현상을 동양적 합리체제로 설명하는 원리(原理)이다. 오행사상은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학적인 우주관에 바탕을 둔 사상체계였다.[2)] 이러한 사상은 음양설과 오행설을 묶어 이르는 말인데, 음·양의 2기와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5행(五行)으로 자연현상이다.[3)]

음양설이란 고대 중국최고의 철학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형상을 모델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음양이란 우주간의 두 가지 상반상생하는 기본원소 또는 동력으로서 우주간의 변화 법칙 또는 그 근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4)], 음양은 사물 현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라고 할 수 있다.[5)]

오행설은 음양설의 영향을 받아 만물의 생성소멸(生成消滅)을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로 설명된다. 오행은 우주만물을 형성하는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이며, 오행의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관계를 가지고 사물간의 상호 관계 및 그 생성

---

1) 음정선, “한국과 일본의 전통색채관과 복색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2005, p.1
2)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89), p.31.
3) 서광선, 『종교와 인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6), p.99.
4) 풍우란, 『중국철학사』(세음사, 1975), p.193.
5) 김아영, “한국인의 빨강에 대한 감성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 2003, p.46.

의 변화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음양설(陰陽說)과 오행설(五行說)은 서로 발전했으나 하나의 사상체계로 통합되어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 성립되었다. 원래의 음양은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뿐 만물을 형성하는 에너지적 원소로서의 의미를 가진 개념이 아니었으며, 실재하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도 아니었다. 춘추시대에 음양이 풍(風)·우(雨)·회(晦)·명(明)·천(天)의 6기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면서 하나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6]

이황의 퇴계집 진성학십도차를(進聖學十圖箚) 보면 태극도설(太極圖說)에서 "오행이란 바로 하나의 태극이며, 태극은 본래 무극(無極)이다. 무극(無極)이면서 태극이다.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고, 동(動)이 극하면 정(晶)하니 정하여 음을 낳고, 정이 극하면 다시 동하니, 한 번 동하고 한번 정하는 것이 서로 그 근본이 된다.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서 양의 하늘과 음의 땅이 성립된다.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 화, 수, 목, 금, 토를 낳아서 오기(五氣)가 순차적으로 베풀어지고, 네 계절이 운행된다."[7] 이 말은 우주의 생성 원리와 다섯 개의 우주 구성 원소와 방위를 해설한 것이다.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은 색채관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한민족의 색채의식에 자리잡고 있다. 오행설의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에서 5가지 색인 청(靑)·적(赤)·황(黃)·백(白)·흑(黑)을 연결시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5가지 기본요소는 오색을 비롯하여 방위나 계절, 맛 등에도 연결되어져 있다.[8] 5가지 색을 정색이라 하고, 각 정색 사이에는 5가지 간색이 있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의 다섯가지 순수한 색을 기본색으로 정하고 정색(正色), 오방색(五方色)이라 불렀다. 오방색은 동(東), 서(西), 남(南), 북(北), 중앙(中央)의 방향과 관계가 있다.

동쪽은 청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서쪽은 백색, 중앙은 황색이다. 즉, 중앙은 풍요와 황금의 색인 황색이 놓이고, 창조와 생식을 표현하고, 해가 뜨는 동방의 색인 청색은 동쪽에, 따뜻함과 만물의 무성한 부를 상징하는 남방의 색인 적색은 남쪽에, 깨끗함과 순결을 나타내는 자연 그대로의 색인 백색은 서쪽에, 암울한 세계를 상징하고 만물의 생사를 관장하는 흑색은 북쪽에 둔다.[9]<그림1> 양(陽)의 色은 청(靑), 적(赤), 황(黃)이고 음(陰)의 色은 흑(黑)과 백(白)이다. 양(揚)에 해당하는 적색과 청색은 악귀를 쫓거나 혼례 등 상류계급의 경사 때 많이 사용되었고 흰색과 흑색은 주로 음

---

6) "김아영, *op. cit.*, p. 47."
7) 문은배, 『색채의 이해와 활용』 (안그라픽스, 2005), p. 351.
8) 음정선, "한국과 일본의 전통색채관과 복색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2005, p. 6
9) 한국색채학회, 『色이 만드는 미래』(국제 출판, 2002), p. 92.

(陰)의 색에 해당하므로 흉례 때나 서민에게 많이 사용하였다.[10] 간색은 벽(碧), 녹(綠), 유(硫), 자(紫), 홍(紅)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간색을 자세히 보면, 동쪽의 청색과 중앙의 황색이 배합된 녹(綠), 동쪽의 청색과 서쪽의 백의 배합인 벽(碧), 남쪽의 적색과 서쪽의 백색의 배합인 홍(紅), 북쪽의 흑색과 남쪽의 적색의 배합인 자(紫), 북쪽의 흑색과 중앙의 황색의 배합인 유황(硫黃)색을 말한다.[11]<그림1,2> 오행의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에서 계절은 춘(春), 하(夏), 추(秋), 동(冬)이고, 오륜은 인(仁), 예(禮), 신(信), 의(義), 지(智)이며, 신체부위와 맛은 각각, 간장-신맛, 심장-쓴맛, 위장-단맛, 폐-매운맛, 신장-짠맛 등으로, 풍수는 동쪽에 청룡을 서쪽에 백호를 남쪽에 주작을 북쪽에 현무, 중앙부는 황룡으로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여 각각 방위에 놓았다. 고구려의 사신도 고분의 벽화에서 방위의 상징을 나타나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황룡이 그려져 있다.<표1> 사신도는 <그림9>에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색은 한민족의 색채의식에서 뿌리깊게 박혀있고 고대시대부터 조선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다. 중국과 일본, 한국 또한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기본사상아래 문화와 자연환경에 따라 색채의식이 다르다. 한국의 단군신화와 신라시대의 탄생설화, 삼국시대의 건국신화를 보더라도 음양오행사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와 강서 중묘나 오낭[12] 등에서도 음양오행사상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상체계는 우리나라 언어표현에도 5가지 기본색인 오방색 중심으로 색에 대한 어휘 표현이 많다.

---

10) “한국색채학회, *op. cit.*, p .92."
11) “한국색채학회, *op. cit.*, pp.92-93."
12) 오방색의 5가지 의 청, 적, 황, 흑, 백 색상으로 꾸민 둥근 주머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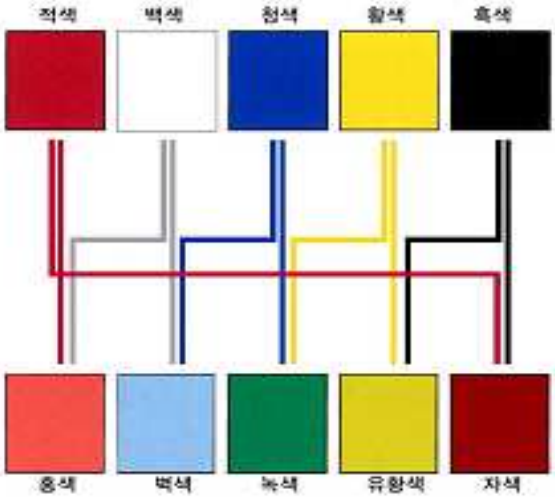
[표 1] 음양오행사상

오행	계절	방향	풍수	오정색	오간색	오륜	신체부위	오미
목	봄 (春)	동 (東)	청룡	청 (靑)	녹 (綠) 벽 (碧)	인(仁)	간장	신맛
화	여름 (夏)	남 (南)	주작	적 (赤)	홍 (紅) 자 (紫)	예(禮)	심장	쓴맛
토	토용	중앙 (中央)	황룡	황 (黃)	유황 (硫)	신(信)	위장	짠맛
금	가을 (秋)	서 (西)	백호	백 (白)		의(義)	폐	단맛
수	겨울 (冬)	북 (北)	현무	흑 (黑)		지(智)	신장	매운맛

[그림 1] 방위 체계도[13]

오정색의 개념도

[그림 2] 정색과 간색의 관계[14]



정색과 간색의 관계

13) 문은배, 『색채의 이해와 활용』, (안그라픽스, 2005), p. 351.
14) “문은배, *op. cit.*, p. 353."

제2절 오색의 상징 의미

1. 상징의 개념

상징은 임의의 언어로 만들어진 기호이다. 상징의 사전적 뜻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거나 그렇게 나타낸 표지, 기호, 물건 따위를 말한다. 기호와 대상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이나 유사성이 없이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약속 또는 사회적 계약이 상징의 원천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들 역시 상징이라 볼 수 있다. 상징은 우리가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인 것이다. 인간은 상징 세계에 태어나서 상징의 삼투작용을 체험하며 성장한다. 인간의 두뇌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여 체계화한 상징들의 보고이다. 그래서 많은 상징은 우리에게 어떤 의식과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상징의 자의성이나 규약 의존성이 있지만 상징은 매우 의미심장한 정념과 인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15]

언어는 문법이라는 분절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단어와 단어, 음성과 음성을 쪼개어야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르네상스의 회화이론들은 이미지를 분절하여 지각하고 인지 했으며 분절된 이미지를 다시 구성해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이미지의 세계는 언어의 세계보다 훨씬 더 소통시키기 어려운 기호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16] '강아지'는 '개'를 뜻하면서 '예쁜 손자'이기도 한다. 이는 언어의 기호이며, 다른 하나는 시각적으로 의미를 얻고 발산되는 기호가 있다. 기호란, 이미 형성된 사회적 관습의 토대 위에서 어떤 것을 대신하는 그 무엇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든 것이다.[17]

즉, 상징은 언어화된 기호의 보편적인 성격을 띄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상을 형태나 색을 가진 다른 것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상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연상인데, 이것은 한 관념으로 말미암아 관련되는 다른 관념을 생각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지극히 관습적이고 사회적이며, 심리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요소가 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18] 색은 우리의 시각에 의하여 이미 '의미화'되어 있다. 색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해온 것이라서 지각되기 이전에 정서와 느낌,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색은 우리 시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며, 이런 의미에서 색은 문화이며 역사이다.[19] 각 나라마다 문화와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색일

15) 박재연, "한국인이 선호하는 청색에 관한 연구-생활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 p. 10.
16) 신항식, 『색채와 문화 그리고 상상력』(프로네시스, 2007), p. 13.
17) 두산백과, 서울: 두산 동아, 2002.
18) "박재연, *op. cit.*, p. 12."

지라도 의미가 달라진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쓰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기호화하여 사용하는 각 색의 상징적인 의미와 음양오행사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빨강(赤色)의 상징 의미

나라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서양과 동양의 빨강의 의미는 다르다. 빨강색은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색상 이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름이다. 각 나라마다 색에 대한 어원은 다르다. 스페인어로 콜로라도(colordo)는 색인 동시에 빨강을 뜻하며[20], 러시아어에서는 빨강색이(krassnij)이 '아름다운'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인다.[21] 에스키모의 언어에서는 빨강이 '피와 같은'의 뜻으로도 쓰인다.

빨강은 크게 힘의 색, 생명의 색, 밝음, 태양, 피의 색 등의 의미를 지닌다. 가장 두드러진 색, 가장 눈에 띄는 색이 빨강이다. 강렬한 빨강이기에 인류 역사에서 먼저 발견한 색일 것이다.

서양에서는 빨강은 나라마다 서로 다른 어원적 의미를 가지지만, 대체로 생명의 원천인 피의 색깔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의 색'에 대한 상징은 국기에서도 나타난다.

서양에서는 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문화권이 많다. 예전에는 모든 종교가 피를 제물로 바쳤다. 동물이나 젊은 자녀의 피의 제물은 가치있게 여겼다. 기독교의 빨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며, 전쟁이나 군대에서 붉은 깃발은 '피의 깃발'의 의미로 로마에서는 깃발이 올려지면 그것은 공격하라는 신호였다. 즉, 피가 흘려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동양, 즉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음양오행사상의 영향을 받아 양(陽)의 의미를 가지고 밝음, 불을 의미한다. 빨강은 한자어에서 불과 관련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적(赤)이라는 글자는 대(大)와 화(火)의 합성어이다.[22] 우리말에도 빨강이 밝음이나 불과 관련된 것은 우리말의 어원적 의미에서 분명히 확인되어진다. 어원적으로 우리말 빨강색은 원래 '붉은 색'이다. '밝다>붉다>붉다'로 변한 것이다. 밝다는 뜻의 빨강은 밝음을 나타내는 '붉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서 모음이 양성인가 음성인가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것이다.[23]

동양에서는 빨강색이 많이 쓰이며 중국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색이다. 고대 중국에서

---

19) "신항식, *op. cit.*, p. 34."
20)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재미있는 열세 가지 색깔 이야기』이영희(역), (예담출판사, 2002), p. 89.
21) Breaem, Harald, 『색깔의 힘』, 김복희(역), (유로서적, 2002), p. 31.
22) 백용정, "색채의 상징을 통한 심상 표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17.
23) "김아영, *op. cit.*, pp.7-9."

는 붉은 색은 병마와 악귀를 쫓는 동시에 부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여겼을 정도로 행운의 색상이었다. 악귀를 막기 위해 아이들의 땋은 머리에 적색 천 조각을 매달아 주었고 현대에도 결혼식에서 신부가 붉은 색 양탄자를 밟고 신방으로 들어가는 풍습이 있다. 또한 장수를 누리기 위해 적색 루비를 지니고 다녔다.[24] 일본의 경우 마귀를 퇴치하기 위해 적두로 죽을 쑤어 나눠먹고 이사할 때 시전과 기둥에 공하며 적소두죽은 일반적으로 정월과 신제축일, 가정에 길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주력을 인정하는 관념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도 토테미즘적인 풍습이 있다. 양기가 왕성하고 만물이 무성하여 생명을 낳고 지키는 힘으로 상징되어 민속에 많이 쓰여진 색이다. 또한 토속 신앙의 주술적 의미로, 귀신을 쫓는데 주로 이용하였다. 예를 들면,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 팥의 붉은색이 액막이가 된다고 여겼고[25], 간장을 담글 때 빨간 고추를 띄웠으며, 아들을 낳았을 때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 문 밖에 붉은 고추를 단다든지, 부적은 붉은 색으로 글씨를 쓰다든지, 손톱에 봉선화 꽃잎으로 붉게 물들이면 병이 낫는 무병과 화평 기원하는 등 우리 민속에서 많이 볼 수 있다.[26] 아기의 백일이나 돌, 혼례, 단오, 동지 등을 치루는 여러 행사에 음식과 폐백에 쓰이는 보자기와 활옷도 적색이 사용된다. 신부가 시댁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반상기에 흰 찹쌀을 신랑의 주발에 가득 담고, 신부의 주발에는 붉은 팥을 가득 담아 홍보에 싸는 것은 찹쌀처럼 끈기 있고, 다정하게 잘 살며 액운을 멀리하고 부귀다남(富貴多男)하라고 하는 풍습이 있으며[27], 고추와 대추는 액운을 제거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자손을 번성을 의미하는 것도 있다.[28] 조선시대에 임금의 병환이 위급하면 붉은 비단에 도끼를 그려 넣은 병풍을 설치하여 흉귀를 쫓는 의식인 계동나의(季冬儺儀) 때에도 동자(童子) 48명이 가면을 쓰고 적색의상을 입었고, 사자(死者)의 관에도 옻칠을 하고 안에 붉은 비단을 사방에 붙인다[29]는 기록으로 보아 주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아침의 밝고, 깨끗하고, 곱고, 맑고 환한 색채 이미지를 반영하며, 배달민족이라는 말도 '밝'과 '달'의 합성어로 붉은색에 대한 한민족의 색채 의식을 알 수 있다.

---

24) 파버 비렌,『색채심리』 (동국출판사, 1995), pp.58-60.

25) <동국세시기>에 "붉은 팥죽을 쑤어 문짝에 뿌려서 액운을 제거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형초세시기>에 "共강씨의의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 역질 귀신이 되었는데 팥을 매우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서 물리쳤다"라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 오행설에 의하면 붉은색은 여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겨울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26) 이재만, 『한국의 색』 (일진사, 2005), p.112.

27) 이창완, "현대 한국화에 표현된 오방색(五方色)",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6, p.12.

28) 고재근, "한국 전통회화에 나타난 색채 연구 : 오방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1999, p. 22.

29) "김아영, *op. cit.*, p.45."

빨강은 정치와 관련이 있는데 중세 시대에는 유럽에서 붉은색은 권력자들의 색으로 붉은 색 옷은 부유한 자들의 특권이었다. 붉은 염료는 비싸서 서민들은 붉은색의 옷을 못 입었다. 로마 시대에도 빨강은 권력자의 색이였으며, 사람들이 빨강을 좋아하여 너도나도 빨강을 사용하기 시작해 제한을 두었다. 일반 서민들이 빨간 옷을 입는 것은 처벌 대상이었지만 암거래가 형성되기도 했다. 빨간색이 왕과 고위 성직자의 색이 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태양의 색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태양은 빨강색이 아니지만 마음속에 연상하는 색은 빨강이라 생각하여 로마인들은 빨강을 황금색과 가까운 색으로 여겼다.[30] 중국에선 노랑은 최고의 색이었으며 왕은 빛나는 노란색을 입었다. 조선 시대에는 중국보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입을 수 없었으며, 대신 양(揚)의 색인 빨강을 왕의 옷으로써 사용하였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피의 색'상징으로서의 국기는 서양에서 보여지며, 스페인,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 공화국, 이탈리아 등이 '피의 색'에 대한 의미가 보여진다. 아프리카의 세네갈 공화국의 빨강색은 피와 용기를 상징하고 멕시코국기의 빨강은 통일을 상징한다.

동양은 해나 불, 밝음을 의미하며,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의 영향으로 한국의 국기의 빨강의 의미는 존귀와 양(陽)을 뜻한다. 일본의 국기는 태양의 근원으로 아침 해를 상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빨강은 혁명을 뜻하며, 4개의 작은 별은 계급[31]을 의미한다.

빨강색은 삼원색 중의 하나로 태양 광선이나 가스, 텅스텐 전구 등의 조명 아래에서는 붉은빛이 더욱 강조되어 보이고 수은등이나 형광등 아래에서는 채도가 낮아 보이는 성질이 있다.[32] 가시광선 중 파장이 가장 길어 빛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난색 중 가장 뜨겁고 파장이 적외선에 가장 가까운 색이다. 그래서 위험표시의 상징으로 빨강색이 쓰인다.

빨강은 색의 극치이며, 태양과 모든 전쟁의 신을 나타낸다. 활동적인 남성원리, 불, 태양, 왕의 위엄, 사랑, 기쁨, 축제의 기분, 열정, 열의, 활력, 광포성, 성적 흥분, 결혼을 나타내는 횃불, 건강, 강함을 나타낸다. 또한 피, 피에 굶주림, 노여움, 복수, 순교, 인내, 신앙, 아량을 뜻한다. 빨강은 또한 사막과 재난을 뜻하기도 한다. 빨갛게 칠하는 것이나 빨간 색으로 염색하는 것은 생명의 재생을 뜻한다. 신들은 빨간색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그것은 초자연적인 힘, 성스러움, 태양에 속하는 힘을 나타낸다.

---

30) 김융희, 『빨강』 (시공사, 2005), p.63.
31) 4개 계급: 노동자, 농민, 소 부르주아계급, 민족 부르주아
32) 최영훈, 『색채학개론』 (미진사, 1985), p.12.

3. 파랑(靑色)의 상징 의미

파랑색은 백색과 함께 우리 민족이 가장 선호하는 색으로서 유교적 금욕주의에 의한 정신적이며 고결한 색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동양에서 보는 파랑은 동쪽, 목(木), 봄, 신맛, 기쁨 등을 상징하며 음(陰)에 해당한다.[33] 일찍이 우리나라는 파랑을 즐겨했으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복식이나 조선시대의 복식에서도 파랑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동이족(東夷族)'이라 불린 것과 '청구(靑丘)'라 하는 걸로 보아 민족적으로 오랜 기간 선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례 때 청, 홍색실을 늘어놓는 것이나 신부복을 청홍색으로 만들었던 것, 사주보를 청홍색으로 만든 것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34]

오행사상에서 파랑은 봄을 상징함에 따라 창조, 불멸, 생명, 신생, 희망을 상징하며, 양기가 왕성한 색으로 사용되었다.

청색의 어원은 '푸르다'이다. 형용사로는 '파란'이 있고, 부사로는 '파랗게'가 있으므로 이같이 간단한 어미변화 하나만으로 명사와 동사를 자유자재로 수식할 수 있다. 청색의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녹색과 청색(파랑)을 구별치 아니하고 같이 쓰이고 있으며, '푸른 숲', '푸른 하늘', '푸른 나무', '푸른 신호등'이 한 예로 보이고 있다. '푸른 하늘' 경우 녹색이 하늘의 색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젊을 청인 청춘이라는 말이나 청년이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녹색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 많다. 영어에서도 신선함이라는 젊음의 상징은 green에 가까우며 blue는 우울한 뜻에 가깝다.[35] 녹색과 청색을 구별치 않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보인다. 인류학자인 브렌트 베를과 파울 카이[36]는 98개의 언어에 나타난 색채 명칭의 유래를 조사해 본 결과 여러 언어 체계에 파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도 '파랑'이란 단어가 없었으며 독자적으로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같은', '바다 같은'으로 비유하여 묘사하였던 것이다. 그런 언어에서 파랑은 녹색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청색을 포괄하는 어휘의 개념이 파랑보다 검고, 남색만큼 진한 것으로 파랑은 청색보다 차가운 느낌이 든다. 파랑의 어원을 보면 '푸르다', '풀'은 근세어에서 원순화(圓盾化)된 것으로 '파랑', '푸르다'를 '풋-'등에서 공용된 'ㅍ'은 구순(口脣)의 파열음이다. '풀', '파랑'의 'ㅍ'과 '사이'-'새로움'의 'ㅅ'에서 동방의 새벽에 파랑과 트임, 새로움과 시작이

---

33) 이재만, 『한국의 색』 (일진사, 2005), p.111.
34) 이재만, 『한국의 색』 (일진사, 2005), p.74.
35) "박재연, *op. cit.*, p.23."
36) 모든 언어에서 제일 먼저 생겨나는 색채 명칭은 흰색과 검정으로 '밝음'과 '어두움', '낮'과 '밤'에서 비롯된다. 그 다음으로 생기는 명칭은 빨강이다. 그 뒤를 이어 녹색과 노랑이 생기난데 녹색과 노랑은 먹을 수 있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파랑은 그 다음에 생긴다.

연상되어 ‘풋’과 ‘숫’을 명사의 접두어로 미숙하고 순수하며 새롭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풋내기, 풋잠, 풋사랑, 풋김치, 숫처녀 등이 있다. 민속개념에서는 청색에도 군청색, 곤색, 감청색등으로 분류하는데, 군청색은 파랑보다 진하고 남색보다 맑고 밝으며 아주 약간의 보라를 포함한다. 곤색은 까만색에 남색을 조금 섞은 것으로 남색에 보라를 조금 혼합한 것이며, 감청색은 곤색보다 더 짙은 색을 지칭한다.[37]

음양오행에서 청색은 동쪽을 가리키며 밝음, 맑음과 연관이 되고 천지개벽의 상징을 뜻한다. 연관된 상징은 소생, 생명, 기쁨 이며, 한민족이 태어날 때 몽골 반점은 푸른색이므로 탄생을 상징한다. 청색이 적색과 더불어 대비되는 색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악귀를 쫓거나 예방하는 의식에 함께 사용되는 색이기도 했다. 청색과 적색은 양(陽)이므로 음(陰)을 뜻하는 악귀를 쫓는 색으로 생각했다. 이는 샤머니즘의 성향이 보이는 것이며 이외에도 출산시 문전에 청송지를 달아놓거나, 가뭄시 문전에 병을 걸고 송지를 꽂아두면 비가 내린다 하였고, 성황당을 지날 때 돌이나 송지를 놓아야 길하다하였으며, 십장생의 소나무 또한 푸른색으로 민간신앙과 연관성이 있다.

파랑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호도가 가장 높은 색으로 상쾌함, 신선함, 물, 차가움 등을 나타낸다. 또한 냉정, 신비로움 등을 느끼게 한다. 파랑색은 문학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파란 꿈', '파란 잎새', '파랑새', '청운의 꿈' 등의 표현은 행복 추구의 상징으로 쓰였다. 또한 한색의 대표적인 색으로 차가운 느낌과 진정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심신의 회복력과 불면증을 완화시키며, 신경계통의 색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파랑은 진실, 지성, 계시, 지혜, 충성, 충절, 지조, 정결, 아량, 사려 깊음, 경건, 평안, 명상, 냉정, 평화, 신뢰, 용기를 뜻한다. 또한 현대에는 파랑은 남성적인 색을 나타내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상징체계에서는 파랑이 여성적인 색이었다. 수동적, 조용하며 마리아의 색이기도 했다. 파랑은 심해의 색, 여성원리로서의 바다의 색이다. 하늘의 파란 색은 '하늘의 여왕'으로서의 '태모', 천공신이나 하늘에 속하는 영적 존재의 색이다. 파랑은 또한 무(無)이며 원초의 단순함과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다.

파랑은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울함과 악마 지하의 세계, 노동자를 뜻한다. 어둠의 색 가까이 있는 색으로 이집트의 색채에서 오시리스는 청색으로 그려졌으며 일본의 카부키에 사용되는 청색은 악마를 나타내고 중국인은 화난 기분을 나타낼 때 청색얼굴의 가면을 사용하였다. 중세 시대에는 빨간 의복은 귀족의 특권이었으며, 광택이 나는 파랑은 귀족의 것이었다. 그러나 대청[38], 인디고[39]의 염색으로 누구나

37) “박재연, *op. cit.*, p.25."

파란의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하인들이 뿌연 파랑을 입게 된 것은 옷에 먼지가 묻어도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용적이었다. 작업복은 인디고로 염색하였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블루칼라’ 라고 부르며 반대로 사무직 근로자는 ‘화이트칼라’ 라 불렀다. 중국에서도 노동자를 ‘파란개미'로 불렀다.[40]

4. 검정(黑色)의 상징 의미

검정은 오행 중 수(水)로서 북방을 가리키고 음(陰)의 색으로 쓰여서 일찍부터 흰색과 검정이 함께 금지되기도 하였으며 계절로는 겨울을 나타낸다. 이것은 검정이 봄(春)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소생을 상징함과 동시에 만물의 흐름과 변화를 뜻하고 있음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검정 계열의 색채로는 검정 이외에 치(淄, 검정), 현(玄), 밤하늘색), 담흑(淡黑) 등이 있다. 숯의 분말이나 갈매나무 껍질 등을 사용하여 염색하였다.[41]

검정이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양(중국, 한국, 일본)이나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상복으로 쓰였지만 예복의 색채로 쓰인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음의 색으로 사용을 꺼렸으나 민간에서는 전복 벙거지, 복건, 신부의 도투락 댕기, 제복에 흑색이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42]

검정(黑)의 어원은 ‘검-’은 ‘검다[黑]’의 어근이 된다. 고대에는 ‘검’이라는 말이 명사로서 ‘흑(黑)’의 뜻을 지녔다. ‘검다’는 명사 ‘검’이 형용사로 바뀐 것이다. 가마괴[烏]의 ‘가마’는 ‘감’에 ‘아’가 붙은 것이다. 흑(黑)의 뜻을 지니는 ‘검’은 ‘걷>걸>걸엄>거엄>검’으로 변천한 말이다. 가마괴의 ‘감’은 ‘갇>갈>갈암>가암>감’의 변천을 거친 말이다. 일본어 구로(kuro, 黑)나 가라스(karasu, 黑鳥)의 ‘구로(kuro)’와 ‘가라(kara)’도 우리말에서 건너간 말이다. 검정의 ‘정’도 따져 올라가면 ‘검다’의 뜻을 지닌 말일 개연성이 있다. ‘블[火], 붉다[赤]’, ‘플[草], 푸르다[靑]’, ‘놀/눌[地], 노랗다[黃]’와 같이 우리말 색채 형용사는 명사에서 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감다, 검다’의

---

38) ‘이자티스 틴크토리아(염색식물)’이라 불렀으며 ‘대청’은 키가 25cm에서 140cm 정도로 곧게 자라며 작은 노랑꽃이 다발로 핀다. 줄기에는 길쭉한 잎이 달리는데 여기에 색소가 있다. 오줌을 섞어 햇볕에 받으면 발효가 된다. 알코올을 섞으면 색소가 잘 나오기 때문에 술을 마신 오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39) 인디고는 ‘인도’의 형용사형이며 인도에서 수입된 색소이다. ‘인디고페라 틴크토리아(인도의 염색 식물)’이며 줄여서 ‘인디고’라 하였다. 인디고는 하얀색 또는 분홍색 꽃이 다발로 피고 콩같이 생긴 열매가 맺히는 다년생 관목이다. 색소가 잎에 농축되어 있고 오줌과 함께 발효된다. 대청보다 인디고의 파랑이 서른 배나 짙은 색을 낸다.

40) “에바헬러, *op. cit.*, pp.72-73."

41) “이재만, *op. cit.*, p. 113."

42) “이재만, *op. cit.*, p. 113."

조어형(祖語形) ‘갈(갇), 걸(걷)’도 명사에서 전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한자의 黑은 불 땔 때에 나는 연기[炎]가 창 사이로 빠져 나가면서 그을려 ‘검다’는 뜻에서 된 글자이다. ‘黑’자는 불과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슬다’의 어근은 ‘긋-’이다. 몽골어에 ‘가라’라는 말은 ‘검다’의 뜻이 있다. ‘가라말’은 검은 말을 뜻한다.

‘검다’의 어근 ‘검-, 감-’의 파생어에는 곰, 거북, 거미 등이 있다. 이에 비춰 볼 때, 검정은 특정 동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동물인 동시에 신격을 갖춘 인격신의 존재로 간주되며, 한국적 토템의 잔재형으로 보기도 한다. 예로서, 개국신화에서 단군의 웅녀(熊女) 탄생설과 김수로왕 탄생 설화에 나오는 ‘구지가(龜旨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정 또한 음양오행사상과 연관이 되며 민간 신앙에서 쓰이는 종이 부적은 한지에 붉은 광물성 안료인 단사(丹砂)를 주로 사용하나, 화재 예방 부적 만은 불의 색인 빨강 대신 물의 상징인 검정색을 주로 쓰며, 먹으로 물수(水)자를 써서 불을 취급하는 곳에 거꾸로 부친다. 그것은 그릇에 담은 물을 거꾸로 하면 쏟아지는 이치를 주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43]

검정은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의 원초의 암흑,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음, 무(無), 악, 죽음의 어둠, 수치, 절망, 파괴, 부패, 슬픔, 비애, 자기 비하, 방기, 장중함, 지조를 나타낸다. 검은 색은 또한 냉엄하며, 무정하며, 부조리한 '시간'을 의미하며, '태모(太母)' 특히 여신 칼리(Kali)의 암흑적 요소나, '검은 마리아'와 연관된다.

검은 색이나 군청색은 혼돈의 색이다. 서양에서 검은 색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연관되며, 요술이나 사악한 마술의 불길한 측면과 연관된다.

5. 흰색(白色)의 상징 의미

흰색(白色)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복색에 있어서는 주로 백색과 소색(素色)이 많이 보이는데, 백색은 완전히 순수한 흰색을 말하며 소색은 자연 그대로의 약간 누런 기가 도는 흰색으로 세탁을 하면 할수록 순백색에 가까워지는 색을 말한다. 백색은 여러 종류가 있다. 아주 희다는 뜻을 가진 순백(純白), 수백(粹白), 백정(白精), 정백(精白), 선명하게 희다고 해서 선백(鮮白)이라 불렀다.[44]

흰색(白色)은 우리 옷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채로서 고대부터 우리 민족은 흰옷을 즐겨 입어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 불릴 정도였다. 그 원인에 관해서는 많은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종합해서 보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당시의 음양오행적인 색채관과 함

43) 한국문화사전 편찬위원회,『한국문화 상징사전』 (동아출판, 1992)
44) “문은배, *op. cit.*, p. 342."

께 그 상징성을 더해갔음을 여러 차례의 금령과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다. 우선 흰색은 음양오행사상으로 흑색과 함께 음(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길례보다는 흉례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복색금제를 통하여 백색이 원래 길하지 않는 색이며, 상복의 색이 소색이었다는 점 등의 상징성이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흰색은 청정과 순결, 광명과 도의의 표상으로 태양의 색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까지는 부정을 쫓는 의미에서 유채색의 옷을 입히지 않고 흰색의 옷만을 입히는 풍속이 있었으며 동양에서는 재생을 의미하는 색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서양에서도 흰색은 '순수'를 상징하였는데 우리 민족의 관념적 이미지와 부합되는 점이 있다. 그리고 천신을 숭배한 민족들은 공통적으로 흰색을 애호했다. 태양을 숭상하던 원시 신앙에 따라 그 광명의 상징인 흰빛을 신성시한데서 생긴 듯하다.

'삼국사기'에는 태종 무열왕 때에 우수주(牛首州)에서 흰사슴을 왕에게 바친 내용과 제주도의 가장 높은 곳을 신성시하여 백록담(白鹿潭)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성덕왕 때는 청주에서 흰매와 흰 참새, 그리고 경덕왕 때는 무진주에서 흰 꿩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45]

신화 상에 나타난 산에 대한 색채관도 흰색이 지배적이다. 백산(白山)은 우리나라 각지에 있고, 성산(聖山)으로 숭배된다. 그 큰 것을 태백산, 작은 것을 소백산 또는 백산이라고 하였다. 단군 신화에 보면 , 단군이 도읍을 백악산(白岳山) 아사달에 옮겼다고 했는데, '岳'과'山'은 같은 뜻의 말이 중복된 것이다. 즉, 백악산은 백악 또는 백산이다.

흰색은 신성시 되는 곳과 상징적인 순결과 정화, 제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46]

자연미를 중시 여기는 우리 민족은 흰색을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란 의미에서 자연에 귀착하는 것 곧 자연과의 동화를 의미하며 자연과 가장 어울리고 자연과 합일하는 의미의 색으로 흰색을 꼽았다.[47]

흰색의 어원은 15세기 문헌에 그 표기가 보이는데, 어근은 태양을 의미한다. 이는 해(또는 햇빛)를 흰색으로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한자 '白'자를 보아도 '日'자 위에 빛을 가리키는 한 획을 내리그어 이루어졌다. 일본어의 경우, '시로(siro, 白)'의 어근은 '실(sil)-'인데, 이는 국어 햇살의 '살'과 어원이 같다. 인도나 유럽에서는 빛나다, 비치다 라는 뜻이며 영어에서도 white는 결백한, 죄없는, 공명 정대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어로 bianco(비안코), 프랑스어로 blanc(블랑슈)이며 독일어는 blank(블랑크)에서 밝은, 빛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빛, 시작, 부활이란 상징을 가

45) "문은배, *op. cit.*, p. 342."
46) "*ibid.*, p.343."
47) 정소연, "동양의 색채개념에 의한 상징적 표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p.12.

지고 있다.[48]

부활한 그리스도는 하얀 옷을 입고 있다.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얀 옷을 입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환생의 상징은 슬픔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환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대 오리엔트에서는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입었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 중국, 한국에서도 상복으로 사용되었다.

흰색은 생명과 사랑, 죽음과 매장의 양쪽과 연관된다. 결혼식에서 흰색은 옛날의 생명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을 상징하며, 장례식에서는 저승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

흰색은 미분화 상태, 초월적인 완전성, 단순함, 빛, 대기, 계몽, 순수함, 무구, 정결함을 뜻하며, 성성, 성별된 상태, 속죄, 영적인 권위를 뜻한다. 흰색의 긴 옷은 순수함, 정결, 육체에 대한 영의 승리를 의미한다. 흰색 깃발은 항복, 휴전, 우정, 선의의 표지다.

6. 노랑(黃色)의 상징 의미

노랑(黃色)은 금색으로, 오행에서 흙, 중앙을 상징하며, 황토는 비옥함을 나타낸다. 모든 색의 근원으로 숭상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천자의 색으로 여길 정도로 가장 존귀한 색이었다. 신라시대부터 노랑은 황제의 색이라 하여 태조 5년에는 남녀 모두 노란색 옷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였다.[49]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입던 정복인 곤룡포는 누런 빛이나 붉은 빛의 비단으로 지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노랑(黃色)은 꿈과 신앙과 부의 상징으로 높고 귀함을 상징함은 공통된다.

노랑 계열의 다양한 이용은 치자를 비롯하여 황련, 황백나무, 울금, 금잔화 등의 풍부한 염료와 노랑이 지닌 상징성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다. 노랑은 왕성한 생명력과 기쁨과 희망을 상징하여 산개나리, 만리화, 장수만리화 등 3종이 집의 울타리를 대신해 많이 심었다.[50]

노랑의 어원은 '노랗다' 또는 '노르다'와 관계가 있다. 노랑의 어근은 '놀-'이고, 여기에 접미사 '-앙'이 붙었다. 형용사 '노랗다, 누렇다'가 있는데, 어근은 명사 '놀'과 '눌'이다. 이처럼 우리말 동사와 형용사는 거의 명사에서 전성되었다. 이 '놀'과 '눌'은 땅[地]의 뜻을 지닌다. '천지현황(天地玄黃)'에서와 같이 '地'는 '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나라[國]의 어근은 '날-'인데, 이 '날'도 '놀, 눌[地, 土]'과 어원이 같다. 몽골

48) "에바헬러, *op. cit.*, p.223."
49) "이재만, *op. cit.*, p.113."
50) "이재만, *op. cit.*, p.60-61."

어에서 흙은 시로이(siroi)인데, 희다는 시로(siro)이다. '노랗다'의 어원은 흙의 뜻을 지닌 고어 '놀/눌'이다. 놀은 '놋쇠'의 '놋'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한자 '누를 황(黃)'에서는 대지와 관계가 없고 '황(黃)'이라는 문자는 불화살을 나타내며 화살촉 부분을 과장한 것이며 그 의미는 불꽃의 색에서 기원한다.[51]

서양의 노랑의 기원은 영어 yellow의 어원은 고대 게르만어의 gelod(겔로) -geolu (지루) - yelwe(옐위)로 변화하여 현재의 yellow가 되었다. 독일어의 노랑은 gelb(겔프)이다. geolu(지루) 는 영어의 지질학을 뜻하는 geology, 지리학을 뜻하는 geography 등 대지와 관계가 있다.[52]

중국에서는 노랑을 최고의 색으로써 이상적인 색이라 생각하였다. 중국의 창조사를 보면, '태호복희의 여동생 여와가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오븐에 넣고 구웠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인간을 너무 일찍 꺼내어 창백한 흰색이 되고 말았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너무 늦게 꺼내어 그만 시커멓게 타고 말았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이상적인 인간인 황금빛 노랑의 인간을 완성할 수 있었다. 흰색은 서쪽으로 보내고 검은색은 남쪽으로, 노랑색은 중앙에 남게 하였다.' 중국은 중앙이 자신들이라 생각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노랑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랑은 태양, 황금, 신의 힘, 광명의 빛, 불사, 창조 이전의 빛으로서의 신, 최고 가치, 생명의 질료, 불, 반짝거림, 영광, 지속, 남성원리를 나타낸다. 태양의 금색은 모든 태양신, 곡물신이나 곡물의 여신, 풍작을 상징한다. 제우스의 황금그물은 만물을 제우스에게로 끌어들인다. 황금그물은 호메로스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과 땅을 묶어주는 굴레이며(일리아드 8.18-27), 플라톤에 의하면 태양과 이성이다. 금과 은, 태양과 달은 동일한 우주 실재의 두 가지 모습이다. 황색(黃色)은 예로부터 신비스러운 색으로 신성시 되어 왔다. 이는 황색에 황금색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을 귀한 것으로 숭상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노란색이 죽음을 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집트에서는 상복이 노란색이고 스페인에서는 사형집행인의 옷이 노란색이라고 한다. 오방색에서 황색(黃色)은 가장 명도가 높고 명시도가 뛰어나다. 그래서 각종 안전장치나 공사장, 유치원생의 단체복, 교통 표지판 등에 황색이 많이 쓰이고 있음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노란색은 깨달음의 색, 이성의 색, 시기, 질투, 거짓, 배반, 치욕, 경고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세계에서는 노랑은 지혜를 상징하고 고대유럽의 상징학에서도 노랑은 이성의 색이다. 신의 상징은 노란삼각형으로 그려진다. 눈 하나를 노란 삼각형으로 그

---

51) 정란희, 『하룻밤에 읽는 색의 문화사』, (예담 출판, 2004), p.149.
52) "정란희, *op. cit.*, p.149."

린그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를 상징한다.[53] 동서양의 노랑에 대한 생각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서양 모두 그림에서 성인들의 머리뒤에서 빛나는 후광으로 노랑색을 채워넣었다. 오라소마[54]에서는 인체에 7개의 차크라가 있듯이 후광들도 7가지가 있다고 했다. 시기, 질투, 거짓, 배반, 치욕 등은 노랑의 부정적인 색의 의미를 지닌다. 시기, 질투는 남에 의해 나타난 감정이다. 노란 녹색을 가진 담즙으로 인해 화를 많이 낸 사람은 피부가 누렇게 뜨며 프랑스 'jaune'와 영어'yellow'의 노랑은 질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55] 거짓, 배반의 뜻은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면서 생긴 유래이다. 노랑의 부정적 의미는 유다에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이다.

노랑은 지성과 지식, 행복을 상징하는 색이다. 'yellow'가 가진 지혜란 태어나면서 갖추어진 본능적인 지혜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배움으로써 손에 넣는 지식을 말한다. 즉 오렌지와 골드가 가진 감각적인 내적인 깊은 지혜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지혜이다.

인도에서는 노랑은 신과 통치자의 지위를 가르키는 색이다. 인도의 신(伸)인 크리슈나는 노란 옷을 입는다. 중국에서는 노랑, 빨강, 녹색은 남성의 색이고 흰색과 검정색은 여성의 색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방색 중에 녹색이 들어가는데, 이는 노랑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제3절 서양의 색채관

1. 고대 색채의식

옛 선조들의 색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알아보면 다른 나라들의 색채관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문명이 발달된 고대 이집트, 마야, 아리아인 등의 색채관을 살펴보면, 색의 상징과 색채의식을 알 수 있다.

고대 이집트에는 크게 흰색, 검은색, 빨강, 노랑, 초록으로 나뉜다. 각각의 색의 의미는 그 문화가 녹아있다. 흰색은 성스럽게 생각했는데, 빛으로 보았다. 붉은 사막에 우뚝 솟아있는 피라미드는 태양광선으로 생각했다. 태양의 빛은 생명을 키우기 때문에

53) "에바헬러, *op. cit.*, p.146."
54) 오라소마는 컬러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자아를 돌아보게 하고, 치유하며, 의식의 성장을 유도하는 컬러테라피 시스템입니다.
55) "에바헬러, *op. cit.*, p.150."

흰색은 생명력, 재생 부활을 뜻한다. 태양신과 관계되어있는 신의 옷은 흰색이며 부활하기를 바라며 만든 미라도 하얀 붕대를 썼다.

검은 색은 동양에서는 음을 뜻하며 나쁜 의미로 쓰여지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색이다. 나일 강의 범람에 의해 운반되어 온 흙은 검은 색이었으며, 이 토양으로 인해 곡물들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생 부활을 관장하는 신들의 얼굴을 검게 채색한다.[56]

빨강의 색은 태양의 색이면서도 죽음의 색을 연상을 시킨다. 사막에서 태양이 질 때의 모습은 온통 붉은 색이며 죽음을 향하여 가는 모습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죽음(死)의 세계는 빨강, 생(生)의 세계는 검정이다. 대립의 색이기도 하다.

이집트는 나일 강에서만 물을 얻을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지녔다. 범람으로 인한 토양은 비옥한 토양으로 바뀌므로 검은색의 토양과 나일강의 물은 식물이 자라날 수 게 하였다. 녹색은 생명과 풍작을 뜻해 신들의 얼굴은 검정과 녹색이 함께 채색되어있다.

금색(노랑)은 이집트에서는 영원불변의 힘을 상징한다. 사후세계에 관해 관심이 많은 이집트는 부활과 재생, 생명에 관련지어 색과 의미를 연결시켰다.[57]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의 나라 중 하나인 마야 문명은 정글 속에 있는 독특한 환경을 지닌 문명으로 여겼다. 마야 문명은 기원전 1500년경, 현재의 과테말라 시 부근부터 태평양 연안에 걸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기원 전후부터 그 세력을 확대해 정글을 헤치며 도시를 건설했다.

마야문명인의 녹색, 빨강, 흰색, 노랑, 검정의 다섯가지 색은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녹색은 세계 중심을 뜻하며, 숲 속에 둘러싸여 있는 곳은 녹색이다. 녹색은 파랑과 문자가 같아 구별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푸른색을 녹색과 구별치 않은 것처럼 비슷하게 보지 않았나 싶다. 태양을 떠오르는 동쪽을 빨강으로 여겼다. 이는 생명의 색, 소생의 색을 의미한다. 태양이 지는 서쪽은 지하세계로 간다고 여기며 검정을 상징한다. 검정은 죽음과 죽음으로 연결되는 전쟁을 상징하는 색이었다. 북쪽은 흰색이며,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여기며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빛나는 흰색을 뜻한다. 남쪽은 노랑이고, 옥수수가 익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색이며 탄생 전의 상태를 뜻한다.[58]

아스텍 문명은 마야 문명이 쇠퇴 후, 나타났으며 방위 색이 바뀐다. 동쪽은 빨강, 서쪽은 하양, 남쪽은 파랑, 북쪽은 검정이다. 아메리카합중국 남서부에는 나바호족이 살고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문화는 색채와 우주관을 연결지으며 전통색에 대한 의미가 크다. 동쪽은 새벽의 색인 하양, 서쪽은 황혼의 색인 노랑, 남쪽은 낮 동안의 색

56) “정란희, *op. cit.*, pp.19-20."
57) "*ibid.*, pp.21-23."
58) "*ibid.*, pp.32-35."

인 파랑, 북쪽은 태양이 남쪽에 있을 때 생기는 그림자이자 어둠의 색인 검정이다.[59] 고대의 문명을 보면 색에 대한 의미가 약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원색인 5가지 색이 쓰인다. 우리나라도 오색을 사용하며 각각의 의미가 다르다. <표2>,<표3>

[표 2] 고대 나라마다 다른 방위색

나라	동	서	남	북	중앙
고대 중국	청색	하양	빨강	검정	노랑
마야	빨강	검정	노랑	하양	
아스텍	빨강	하양	파랑	검정	
나바호족	하양	노랑	파랑	검정	

[표 3] 고대 나라마다 다른 색의 상징

	빨강	파랑	녹색	노랑	검정	하양
이집트	죽음		생명·풍작	(금색) 영원불멸의 힘	부활·재생	생명·재생불활
마야	생명		생명·소생	탄생 전, 부활	죽음·전쟁·암흑세계	태양·생명
아스텍	빛의방위, 태양의 집이 있는 장소의 정면	가시의 방위			죽은 자 나라의 방위	여자들의방위, 태양의 집이 있는 장소
나바호족				황혼	어둠	새벽

59) "*ibid.*, p. 39."

2. 종교의 색채의식

종교는 절대자의 신성을 강조한다. 고대의 토테미즘 또한 종교의 한 일종이며, 각 나라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크게 보면 중동은 이슬람교, 유럽이나 아메리카는 기독교, 동아시아는 불교를 가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신을 표현하기 위해 색채를 사용하여 어떠한 상징을 부여한다. 종교복식에도 색채는 신과 연결된 상징으로 사용되며 신성함을 표시하는 중개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이슬람교는 유대교, 기독교와 같은 신을 숭배하고 있다. 알라는 아랍어로 신을 의미한다. 코란은 예언자 마호메트가 나타나 신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다. 이슬람교는 성서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코란에 아담, 하와로 나온다. 아덴은 아랍어로 '영원'이란 뜻이므로 녹색의 낙원, 영원의 낙원으로 불린다.[60]

[그림 3] 마호메트

인간은 오랜 옛날부터 식물의 녹색을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녹색은 생존을 위한 식량으로 식물이 필요한 인간이 필요 불가결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색인 것이다. 녹색은 자연의 색이며 지상 낙원인 에덴동산을 떠올리게 만들어 언젠가 되돌아가야 되는 편안한 색이다. 마호메트는 녹색을 좋아했으며, 4대 칼리프[61] 중의 하나인 알리는 녹색의 외투를 입었다고 한다.<그림3> 이러한 영향으로 아랍계쪽의 나라들은 대부분 모스크 지붕이 녹색이며 국기도 녹색이 들어간다.[62]

이슬람에서 흰색은 빛의 색, 신의 색이다. 유대교와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흰색을 같은 의미로 쓰인다. 우상숭배를 금지 하므로 신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흰색은 신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고, 슬픔의 색이기도 하다. 수의(壽衣)의 색이며 흰색 천으로 시신을 감싼다.[63]

검정은 죽음, 슬픔의 색을 뜻하며, 극복의 의미도 있다.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의 국기 속 검정은 고난 극복과 이슬람의 승리를 상징한다.

---

60) "정란희, *op. cit.*, p.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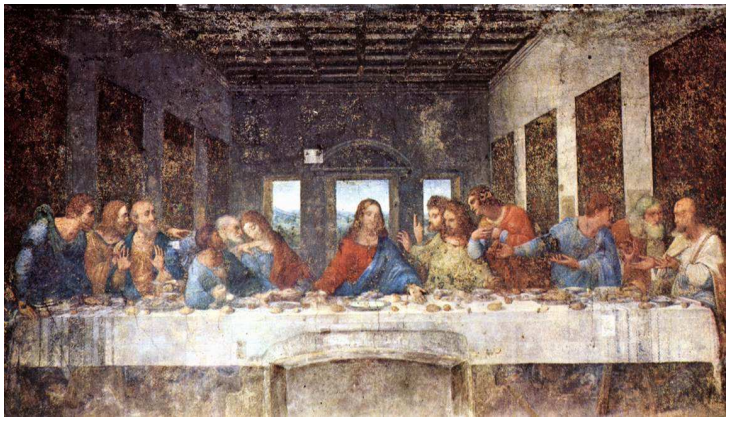
61) 아랍어로는 칼리파(Khalifah)라고 하며, 본래는 '칼리파트 라술 알라(Khalifat rasul Allah)'로 그 사전적 의미는 '신의 사도의 대리인'이다. 칼리프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 이슬람 교리의 순수성과 간결성을 유지하고, 종교를 수호하며, 동시에 이슬람 공동체를 통치하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이슬람 제국의 최고 통치자를 가리킨다.

62) "*ibid.*, p.101."

63) "*ibid.*, p.104."

이슬람에서 빨간색이 들어간 국기에서는 독립 투쟁으로 흘린 희생자의 피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으며 독립에 힘썼던 사람들의 정열을 의미한다. 마호메트가 홍해 연안인 바드르에서 전투를 벌였을 때 승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이 보낸 천사들이 붉은 터번과 붉은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고 하여 천사의 지원군의 색을 뜻한다. 빨강의 의미가 이렇듯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화염의 의미를 뜻하면 지옥을 말한다. 이슬람교도는 사망 후 낙원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오면 신이 나타나 최후의 심판을 내릴 때, 낙원으로 가는 자와 화염지옥으로 가는 자로 나눈다고 한다.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흙이라 그대로 매장되기를 원한다. 화장하는 것은 최대의 형벌로 생각한다.[64]

[그림 4] 최후의 만찬



기독교 회화의 상징색을 보면 파랑 은 마리아<그림5>, 빨강은 예수, 퍼플보라는 성부(聖父), 녹색은 성령(聖靈)을 상징한다. 기독교의 상징색은 대부분 옷의 색으로 나타나며 기호처럼 작용한다. 교황 그레고리대제는 교회 회화에 대해 최상위법을 공포했다.[65] 교회에 있는 그림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성경의 역할을 한 것이다.<그림4,5,6> 그래서 상징적으로 회화에서 보여지는 색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최후의 만찬<그림 4>에서 빨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너희는 와서 이것을 마셔라. 이는 내 피이니라.'의 예수의 말처럼 희생의 피를 의미한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는 부활절 직전의 일요일, 성 금요일 등 예술의 수난을 기억할 때 그리고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을 택한 순교자들의 기념일에 가톨릭 사제는 빨간 제의를 입는다. 빨강은 불을 상징한다. 빨강, 노랑, 주황의 색은 불꽃을 연상시키지만 머리 속에 그려진 색은 빨강이다. 고대부터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약하게 태어났고,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강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64) "*ibid.*, p.112."
65) "에바헬러, *op. cit.*, p.57."

로움을 주는 불은 파괴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신성함을 준다. 번개를 통해 내려온 바로 그곳,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불은 신의 형상이자 신 자체이다.[66]

빨강은 남자의 색이며 부와 권력의 색이었다. 가장 고귀한 빨강은 퍼플레드(자주색)이며 왕이 즉위할 때 퍼플레드 외투를 입었고 최고위직 판사들도 퍼플레드의 법복을 입었다. 추기경들의 색은 '추기경들의 퍼플(kardinalspurple)'이라고 불리는 색의 옷을 입었다.[67]

[그림 5] 라파엘로의 성모상

파랑은 빨강과 반대되는 색으로 여성의 색이며, 마리아의 색<그림5>이다. 파랑은 물을 나타내는데 물은 여성을 상징한다. 광이 나는 울트라마린 블루(군청색)의 옷을 입고 있으면 승리의 성모, 하늘의 여왕이고, 짙푸른 옷을 입은 마리아는 고통의 성모이다. 회화에서 보여지는 마리아의 파랑은 언제나 입는 것은 아니다. 회화작품에 나타난 성인들의 위계질서에 따라 달라지며 예수의 옆에 있는 마리아는 값비싼 울트라마린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값싼 어두운 파랑의 옷을 입는다. 값비싼 울트라마린은 광택이 났으며, 값싼 어두운 파랑은 광택이 없고 칙칙한 파랑색이다. 성당의 둥근 지붕과 마리아의 파란 망토는 하늘을 상징한다.

녹색은 중세 이후 기독교의 전례시 사용되는 색 중의 하나가 되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처음부터 성스러움을 가진 색으로 생각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12세기경에 전례에 사용되는 색채의 사용이 확립되기 시작했고 13세기에 교황 인토켄티우스 3세의 권한에 의해 색이 통일 되었다. 녹색은 그리스도의 재생과 부활의 상징하는 색으로 생명의 희열 및 영생에의 희망을 상징한다.[68] 이슬람교의 녹색의 의미처럼 기독교도 에덴동산의 녹색은 창조적인 자연을 의미한다.

신은 에덴동산을 만들기 이전에 빛을 창조했다고 한다. 신의 존재는 빛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독교 미술에서는 신을 빛, 신적인 것은 후광과 함께 그려진다.<그림 6> 이는 신이 눈부실 정도로 하얀 이미지를 지녔기 때문이다.[69] 기독교 상징체계

---

66) "*ibid.*, p.98"
67) 박미연, "서구 복식에 나타난 녹색과 그 상징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2003, p.62-64.
68) "정란희, *op. cit.*, p.19."
69) 김융희, 『검은천사 하얀악마(검정과 하양의 문화사)』 (시공사, 2005), p.17.

[그림 6] 프라안젤리코의 수태고지

에서도 신의 전령은 모두 흰색으로 표현되는데 성령의 흰 비둘기, 하얀 날개의 천사, 예수를 나타내는 하얀 어린 양, 마리아가 두른 하얀 수건, 천사가 들고 있는 백합은 성스러움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교황은 흰색을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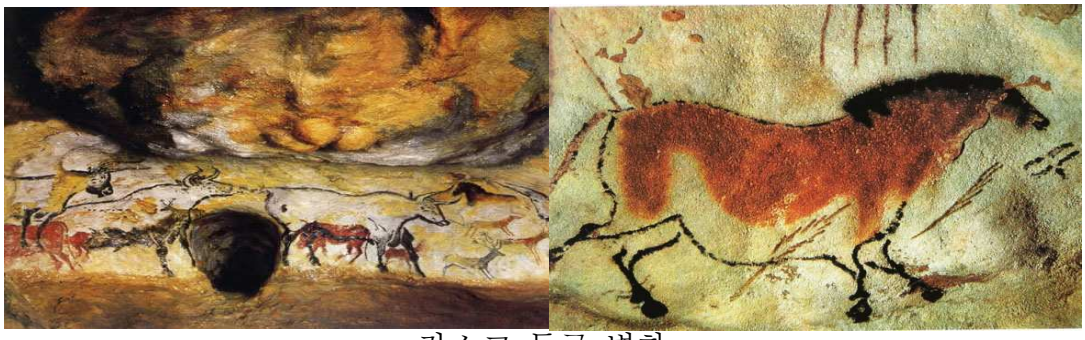
제2장 한국의 역사에 나타나는 색채 의식

제1절 선사미술과 삼국시대의 건국신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알타미라 동굴벽화와 후에 발견된 라스코 동굴벽화<그림 7>가 있다. 이 동굴벽화에는 소, 사슴 등이 그려져 있으며, 黑 ·赤 ·褐色(갈색), 白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생생한 묘사, 아름다운 색채와 입체감은 보는 사람을 압도한다. 이 벽화를 통하여 당시의 예술 활동 뿐만 아니라 수렵의 방법이나 무기 ·신앙 등을 알 수 있다. 이런 토테미즘 성향은 삼국시대의 건국신화에서도 보여진다.

[그림 7] 알타미라 동굴 벽화와 라스코 동굴 벽화

알타미라 동굴 벽화



라스코 동굴 벽화

출처: http://cafe.daum.net/121315/NFyX/216

신화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건국 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양한 건국신화가 있다. 고구려의 주몽신화, 신라의 박혁거세, 김알지 신화 등이

있다. 이러한 신화를 통해 역사·문화적 사실을 알 수 있다.

단군신화의 줄거리는 대략 하늘나라의 환웅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 풍백(風伯), 우사(右使), 운사(雲師)를 거느리며 농사, 목숨, 병, 형벌, 악한 것과 착한 것 등 사람들의 일 360가지 일을 다스린다.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에게 나타나,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하자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을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했다. 호랑이는 뛰쳐나간 반면에 곰은 참고 기다려 여자로 변하여 웅녀란 이름을 갖게 되고 환웅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단군왕검이다.

여기서 곰의 상징은 모계 사회를 의미하며 산신, 대지의 영, 수신, 샤먼의 수호령, 토템미즘이란 걸 알 수 있다. 환웅은 하늘이며 태양신이다. 한국 고대의 건국신화에서 건국의 시조를 천신의 자손이라는 사례가 많다. 단군은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환웅과 웅녀라는 신성한 존재들의 신성결혼의 결과이다.[70] 이는 하늘은 양(陽), 땅은 음(陰)을 뜻하므로 음(陰)과 양(陽)의 결합을 의미한다. 단군 왕검을 낳은 웅녀는 곰이 사람으로 변신한 신격의 존재이다. 이는 개국 신화 중에서 천지 양신족설(天地兩神族說)의 한 형태로, 곰 토템의 여성을 신격화한 것이다. 이 곰의 검은 색깔에서 검은색이 유래된 된 듯하다. 김수로왕 탄생 설화에 나오는 '구지가(龜旨歌)'에 나타나는 거북도 신격을 갖춘 것으로, 사람들이 '구지가'를 부르며 신성한 군주를 맞이하였다. 음양오행에서 흑색은 현무(거북)을 나타낸다.

주몽의 신화를 보면, 북부여의 금와왕이 유화부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해모수와 정을 통했다는 말을 듣고 유폐시켰다. 햇빛이 유화부인을 따라오면서 비추자, 그로부터 태기가 있어 알 하나를 낳았는데, 여기서 나온 아이가 주몽이다. 여기서 흰색을 표상하는 햇빛이 유화 부인을 비추어 알을 낳게 되었다는 것은 천신 하강을 상징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흰색은 태양, 빛을 의미 하므로 탄생의 상징이 된다.

다른 탄생설화를 보면 신라의 박혁거세와 김알지 신화에 색에 대한 것이 나온다. 먼저 박혁거세 탄생설화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자.

여섯 부족이 있었는데 남쪽 양산을 바라보니 이상스런 기운이 땅에 드리우고 흰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어 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찾아가 살펴보니 자주색 알이 하나 있었고, 말은 사람들을 보고 하늘을 향해 길게 울었다. 그 알을 쪼개자 어린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몸을 씻어주자 몸에서 광채를 따고, 날짐승 뭍짐승이 춤을 추었으며,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해와 달이 맑게 빛났다. 혁거세[71]란 이름을 지었다.[72]

---

70) 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p.132

71) 불구내왕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는 말이다. 어떤 이들은 "이는 서술성모가 낳은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이 선도성모를 찬미하면서, 어진 이를 낳아 나라를 열였다는 말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씨의 시조 김알지(金閼智)는 탈해 이사금9년인 65년에 금성 서쪽 시림 숲 속의 한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금궤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출현하였다. 알지란 이름은 소아(小兒)를 뜻하는 '아기' 혹은 곡물의 '낟알'을 의미하는데, 금궤에서 나왔기에 성을 김(金)으로 하였다고 한다.[73]

흰 말은 신성함을 보여주고 자주색 알은 고귀함을 나타낸다. 신화에서 흰색은 출산과 서기(瑞氣)를 상징한다. 그래서 흰색은 상서로운 징조를 표상하고 있다. 신화에서 하늘과 관계있는 흰 기운과 흰 새, 흰 동물이 등장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은 왕이라고 믿는, 우리 민족의 원조 신화 의지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주색은 붉은색으로 양(陽)을 의미한다. 김알지의 태생설화에서 보면 금궤에서 나왔다는 것은 금(金)을 의미하며 금색은 신선한 빛, 신비로운 영적세계의 상징으로서 신전, 불상 등의 의미로 쓰인다. 중국 사람의 주(朱)씨 성(姓), 그리고 영국 사람의 브라운이라는 성의 예처럼 금이라는 색이 쓰인 성이 우리나라에는 김(金)씨이다. 마르코폴로가 소개한 황금의 나라 한국에는 금색에 대한 애착심과 고귀함을 표시하는 금(金)자를 많이 쓰고 있다고 했다.[74] 황금은 부귀와 권력의 상징이며 금의 희소가치와 그 색깔의 아름다움으로 귀금속의 왕자라 불리우며, 산화하거나 변색하지 않는 화학적 성질 때문에 고대로부터 불변, 영원한 것을 상징해 왔다. 고대 이집트가 황금을 쓰는 이유가 영원불변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58-18B.C. 재위 37-19B.C.)의 이름은 주몽으로 '붉은 주(朱)'가 사용되었고,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혁(赫)자는 '붉을 적'이 두 번 사용된 한자로 붉음을 강조하였다. 이름에 색이 들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가락국의 건국신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보자기'와 김수로왕의 비(妃)가 될 허황옥이 바다 남서쪽에서 붉은 빛의 돛을 달고 붉은 기를 휘날리며 왔다는데서 나타나는 붉은 빛은 하늘의 밝음과 그 밝음을 고귀하게 숭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화에서 토테미즘과 음양사상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색채관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2) 고운기, 『삼국유사』 (홍일출판사, 2001), p.36.
73) 장효정, 『하룻밤에 읽는 삼국사기』 (렌덤하우스 중앙, 2004), p.24.
74) "하용득, *op, cit.,* p.205."

제2절 한민족의 역사적 색채의식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고조선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 환경과 음양오행사상에 의해 다른 나라와는 다른 색채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동양이라 함은 현대에 불러지는 중국, 한국, 일본을 크게 본다. 이 세 나라는 크든 작든 문화를 주고 받았으며, 각자 독자적으로 문화를 형성해 갔다.

한민족의 색채의식은 고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성되었다. 현대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색채의식이 무엇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크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문화 예술에서는 소색과 밝은 담색을 중심으로 자연색의 색채관이다. 불교의 영향으로 장식적이고 음양오행사상이 들어간 화려한 색채를 볼 수 있다.

고구려시대에는 당시의 생활상, 문화, 복식 등을 볼 수 있는 것은 고분벽화이며, 오방사상의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다. 고분벽화는 고대단청이다. 단청은 건물의 벽이나 천장, 기둥 등에 그림이나 여러 무늬를 그려서 색칠하는 것이다. 장식을 위해 하는 것도 있지만 목재의 표면이 갈라지거나 썩는 것을 막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붉은 단 丹 ,푸를 청 靑자를 쓰며 대비되는 두 색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음양의 원리를 보인다. 즉 우주만물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좋은 기운을 자아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75] 청(靑) · 적(赤) · 황(黃) · 백(白) · 흑(黑)의 오채를 기본으로 쓰였다. 명칭은 단확(丹雘), 단벽(丹碧), 단록(短麓), 진채(眞彩), 화채(花彩) 등의 여러 가지로 불렀다.[76] 벽화나 천장화에 나타나고 있는 음양오행사상에 의하여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도는 불교적 입장보다 오행설 사상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신도란 네 가지의 신성한 상징동물을 그린 그림인데, 이들은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며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수호신적 존재로서 나타난다. 동쪽의 청룡은 용의 모습이고 서쪽의 백호는 호랑이 모습이며, 현무는 뱀의 얼굴에 거북의 몸을 형상화하고 다리는 사슴의 다리를 하고, 뱀이 휘감고 있으며 주작은 모든 일을 이루어준다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환상적인 새로 변형하여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한다.[77]

---

75) 박해진,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 단청』 (현암사, 2004), p.123.
76) “하용득, *op. cit.*, p.37."
77) “한국색채학회, *op. cit.*, p.93."

강서중묘(江西中墓)와 강서대묘(江西大墓)의 연대는 6세기말~7세기이며, 위치는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삼묘리이다. 그 곳에는 세 고분이 있는데, 고분군의 남쪽에 놓여 있는 것이 강서 대묘이고 그 뒤에 나란히 놓인 두 고분 가운데서 서쪽의 것이 강서중묘이다. 강서 중묘는 네 벽에 사신을 배치하고 천장에는 인동넝쿨무늬, 구름무늬 봉황새 그리고 해와 달을 그렸다. 이 고분벽화에서 백호와 주작의 그림이 잘잘 표현되었는데, 백호도는 동물의 골격과 근육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표현하여 속도감과 박력감을 잘 나타내었고 주작도는 여의주를 물고 날개를 한껏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갖가지 채색과 선들을 능숙하게 써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새를 형상화 했으며 색감이 선명하다.

강서 대묘<그림9>는 후기 고구려 벽화무덤을 대표하며, 청룡도와 현무도가 유명하다. 강서대묘와 중묘 두 고분에서 산신은 아무런 배경이 없이 벽면에 그려졌으나, 선명한 채색과 세련된 필치로 말미암아 상상의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무 배경의 벽면에 깊은 공간감을 주어 마치 아득한 하늘세계에서 산신이 나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상징 동물은 동쪽은 목(木)이라 하여 그 동물을 청룡이라 했고 남쪽은 화로 그 동물은 주작이라 했고 중앙은 토(土)로 그 동물은 황룡, 그리고 서쪽은 금(金), 그 동물은 백호, 북쪽은 수(水), 그 동물은 현무라 했던 것으로 보아 사신도가 오행사상의 천문, 방위, 색채관에 기인한 것을 짐작하게 된다.

고분벽화에 쓰여진 색채는 자(자), 황(黃), 흑(黑), 녹(錄), 백(白) 등이며, 무용총 벽화에서 보면 주(朱), 암적(暗赤), 황(黃), 녹청(綠靑) 등으로 적색 황색이 주조가 되어 화변이 밝아지고 사신총의 벽화에서는 화려한 색채를 보여준다.[78]

복색을 보면 고구려의 왕은 오채색 옷에 백라관을 썼고 귀인과 대궁인은 청라관, 궁인은 자라관, 강라관, 서인은 소색계의 갈의를 입었다고 기록되었다. 백, 자, 청, 강의 순서로 된다. [79]

백제시대는 문헌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문화를 향유하였다. 색채 또한 부드러울 것이라고 추정한다. 백제는 삼국사기의 건국 설화에서 보면 주몽의 아들 유리가 나타나자 다른 아들 세력이 남하하여 나라를 세운 것이 백제라 하였다. 또한 양서를 보면 '백제인들의 키는 크며 의복은 깨끗하다'라는 기록과 함께 백제인의 언어가 고구려와 대략 같다는 것을 특기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의복문화가 백제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제도 신분에 따라 구분이 되었는데 백제의 왕은 자주색 두루마기에 푸른 비단바지를 입고 흰 가죽띠에

78) "음정선, *op. cit.*, p.16."
79) "음정선, *op. cit.*, p.18."

검은 가죽신을 신었다. 관인들은 다홍색으로 옷을 입고 은꽃으로 관을 장식하였다. 서인은 자주색과 다홍색의 옷을 입지 못하였는데 이로써 자주색과 다홍색이 고귀함을 상징하는 색임을 알 수 있다.[80]

삼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것은 신라시대이며 간색까지의 색개념이 있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는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새로운 염료유입으로 색채문화의 발달이 이루어졌다.[81] 법흥왕 때 의복을 제정했고 모든 관리의 공복에 대해 붉은색, 자주색으로 위계를 정하였다. 중국사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신라의 복식은 고구려 백재의 복식과 비슷하지만 고나, 저고리, 바지, 신발의 부르는 명칭이 달랐다고 한다. 자주색은 진골, 다홍색은 진골과 6두품, 푸른색은 5두품, 황색은 4두품의 복색이었다.[82]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단청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왕궁과 사찰에서만 사용되었다.

삼국의 색채는 의복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듯이 종합적으로 보면 적(赤), 황(黃), 청(靑), 백(白), 흑(黑) 등의 오색을 중심으로 자, 녹, 등의 간색이 첨가된 색채 문화가 형성되었다. 음양오행이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한민족의 사상에 녹아내린 것을 알 수 있다.

---

80) “장효정, *op. cit.*, p.238."
81) “음정선, *op. cit.*, p.17.".
82) “장효정, *op. cit.*, p.230."

[그림 8] 삼국 시대의 의복

고구려

백제 신라

<출처: 이재만, 한국의 색(일진사)>

[그림 9] 강서대묘의 사신도

출처: http://blog.daum.net/hjandej/3501005

2.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문화예술에는 귀족문화와 불교숭상에 의한 금색 꾸밈을 가미한 장식적인 색채관과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다채로움과 자연과 어우러지는 소색과 밝은 담색이 나타난다. 특히 고려는 불교가 융성했던 시기이므로 불교문화가 발전하여 장식적인 색채관이 보여진다. 불화에서 보면 색채들이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색채와 금색을 사용함으로써 고상하고 호화로움을 보여줘 귀족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83]

고려시대의 단청 색채는 음양오행의 오색과 간색을 중심으로 사용되어 화려하고 조화롭게 장식하였다. 불교가 국교인만큼 사찰 건축이 발달했다. 목조 건물뿐만 아니라 석조물에도 단청을 하였다고 한다. 햇빛을 많이 받는 기둥에는 붉은 색을 칠하여 힘과 능력을 강조하고 처마 등의 그늘진 곳에는 녹청색으로 명도를 높여서 전체 조화를 이루었다. 같은 부재라도 빛을 많이 받는 옆면에는 각종 색을 넣어 미려하게 장식하고,

83) “음정선, *op. cit.*, p.23."

그늘진 밑면에는 명도가 높은 붉은 미색을 써서 공간미와 율동미를 더하였다.[84]

[그림 10] 고려청자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제68호)[86]

고려시기에 비색의 우아함을 나타내는 청자<그림 10>가 유명하다. 청자는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졌으나 고려시대에 그 절정을 이루어 독창적인 색을 보여준다. 전기, 중기, 후기로 나뉘어지며 전성기인 중기에는 맑고 밝은 비색을 보였으나 후기에는 몽고침략 등 국가의 혼란스런 시기로 어두운 비색이 나타난다. 이러한 청자의 색인 비색은 자연미를 추구하며 자연스런 색을 선호하는 한민족의 대표색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85]

염색 또한 발전하여 의복의 색채에 다양한 색이 나타났는데, 왕의 복색은 조복(朝服)은 자황(雌黃), 홍황(紅黃), 자황(雌黃), 황(黃)의 순으로, 상복(喪服)은 담황(淡黃), 자(紫), 대홍(大紅)의 순이며, 공복은 자색이었다. 고려 충렬왕 원년에는 백의가 음양오행설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금하였는데, 연려실기술[87]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원년에 태사국에서 임금님께 아뢰기를 "동방(東方)은 오행 중 목(木)의 위치오니 푸른 색깔을 숭상하여야 하며, 흰 것은 오행 중 금(金)의 색깔인데 지금 나라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흰 모시옷으로 웃옷을 많이 입으니, 이것은 목(木)이 금(金)에 제어되는 형상입니다. 백색의복을 금하기를 청하나이다"하니 그 말을 좇았다. 하지만 고려시대는 흰옷을 많

84) "박해진, *op. cit.*, p.123."
85) "음정선, *op. cit.*, p.24."
86)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은 국보 제68호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출처: 문화정보센터)
87) 조선 후기의 학자 이긍익(李肯翊:1736~1806)이 지은 조선시대 야사총서(野史叢書)이다. 59권 42책. 저자가 부친의 유배지인 신지도(薪智島)에서 42세 때부터 저술하기 시작하여 타계(他界)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에 걸쳐 완성하였다. 400여 가지에 달하는 야사에서 자료를 수집 ·분류하고 원문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원집(原集) 33권, 속집(續集) 7권, 별집(別集) 19권 등 3편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원집에 태조 이래 현종까지의 283년간(1392~1674) 각 왕대의 주요한 사건을 사의(私意)를 가하지 않고, 인용한 책 이름을 밝혀서 적어 나갔고, 각 왕대의 기사 끝에는 그 왕대의 상신(相臣) ·문신(文臣) ·명신(名臣)의 전기(傳記)를 덧붙였다. 속집은 숙종조(肅宗朝) 47년간(1674~1720)의 일들을 원집의 형식대로 적었다. 별집은 조선시대의 역대관직(歷代官職)을 비롯하여 각종 전례(典禮) ·문예(文藝) ·천문 ·지리 ·변위(邊圍) ·역대 고전 등 항목별로 그 연혁을 수록하고 역시 인용한 책 이름을 부기하였다.

이 입었다. 「고려도경」에 따르면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평상시에는 백저포를 즐겨 입었으며, 여자의 옷은 남자와 같은 백저의를 입었다. 포(袍)는 바지·저고리 위에 입는 겉옷이며, 형태는 저고리가 길어진 것이다. 백저포는 지체가 높은 사람이 입는 너른 소매였고, 백저의는 지체가 낮은 사람이 입는 좁은 소매모양이다. 치마의 색은 진하고 엷음에 차이가 있었으나 신분의 구분이 없었다고 한다. 모시를 심어 대부분 베옷을 입고 제일 좋은 것은 깨끗한 흰색이었음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나충록」에 말하기를 "고려 사람은 흰옷을 좋아한다."고 하여 고려시대의 사람들은 흰색을 좋아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고려시대는 귀족적인 화려함이 보이면서도 소박한 미를 보여준다.[88]
<그림11>
[그림11] 고려 의복[89]

3.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현재 한국인의 색채의식을 이룬 시기로 고려시대에 이어져 온 자연미와 음양오행에 의한 원색적 색깔, 유학과 실학의 소색과 담색 중심으로 한 절제와 소박미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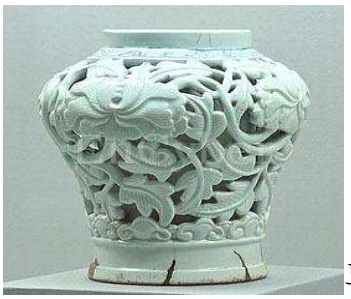
가장 현대와 가까운 시대로 사상과 생활 문화면에서 삼국시대, 고려시대보다 먼저 떠올릴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중에서도 후기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 이유는 이 시기가 현대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한국적인 미는 대부분 조선 후기의 예술품이 지니고 있는 미를 지칭하기 때문일 것이다.[90]

유교를 장려하고 억불숭유정책을 펼친 조선시대에는 불교의 화려함과 장식적인 미를 절제하고 유교의 영향으로 과장되지 않은 소박미의 성격을 띄게 된다. 유교적 사고는

88) "하용득, *op. cit.*, p.27."
89) "이재만, *op. cit.*, p.124-125."
90) 최춘식, 『한국미 그자유분방함의 미학』 (효형출판, 2003), p.69-70.

인간의 감각과 감정을 억제하면서 형식, 인격, 규범을 중요시하는 사상으로 욕망의 표출이라 여겨지는 색을 천시하였다.[91] 그러한 경향은 의복과 건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고고한 인격, 인품 그리고 청렴한 청백리나 굳은 정절을 지키려는 이상적인 인간상도 역시 백색을 좋아하는 심리적 반응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적인 감정 또는 감각적인 것보다도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고 모나지 않고 뚜렷하지 않은 은은한 한국인의 전형적인 인간상을 만들고, 따라서 전통적 의식은 색채라는 것에서 벗어나거나, 채색을 피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의식화 되었다.[92]

[그림 12] 백자투조모란문호[93]



고려시대에는 채색화가 호황을 누렸다면 조선시대에는 수묵산수를 지향했고 백자<그림12>는 소박함과 자연미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오방색이 나타난 색채는 다채롭고 화려했다. 그 예로 민화는 보색대비를 이뤄 생동감이 넘친다. 오방색은 음식<그림15> 에서도 나타나며, 구절판, 신선로, 비빔밥에서도 보여진다. 보자기도 오방색을 응용한 음양오행적 색채 방식을 따르고 있다. 보자기는 음양오행사상에 의한 복락기원의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자기에 싸두는 내용물을 복에 비유하여 복을 싸두면 복이 간직된다는 민간신앙이 널리 퍼져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94]

[그림13] 단청[95]

조선시대에는 억불숭유청책으로 인해 사찰의 단청<그림13>은 점차 줄어들고 궁궐 이외에는 규제를 하였다. 건물 내·외부 단청을 다른 색조를 했다. 외부는 밝고 높은 등황 색조로 하고 내부는 온화하고 차분한 녹청 색조로 처리하여 선명하고 화려하게 했다.[96]

고구려 강서 중묘와 강서 대묘처럼 오방사상을 따른 방위관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91) "음정선, *op. cit.*, p.30."
92) "하용득, *op. cit.*, p.44."
9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240호. 조선시대. 원통형의 내호(內壺)와 모란꽃을 투각(透刻)한 장식외호(裝飾外壺)로 구성된 2중 장치의 항아리이다. (출처: © encyber.com)
94) 정필순, "현대적 조형미의 조각보." 『월간공예』, 1990. 9, p.96.
95) 출처: http://blog.daum.net/pbw5701
96) "박해진, *op. cit.*, p.138."

시대에도 나타난다. 한성의 사대문을 정할 때 방향을 동, 서, 남, 북으로 하고 동쪽에 홍인문(洪仁聞), 남쪽에 숭례문(崇禮門), 서쪽에 돈의문(敦義門), 북쪽에 숙청문(肅淸門)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오행(五行)과 오시(五時)의 의미를 생각하여 장마 때는 남쪽의 양기를 받으려고 숭례문(崇禮門)을 열었고 가물 때는 불쪽의 음기를 위해 숙청문(肅淸門)을 열었다고 한다. 경복궁이 불타 없어진 후, 고종은 재건하여 동쪽에 건춘문(建春門), 서쪽에 영추문(迎春門), 남쪽에 광화문(光化門), 북쪽에 신무문(神武門)을 두었다.[97] 이는 건축 양식에서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대문의 이름과 방향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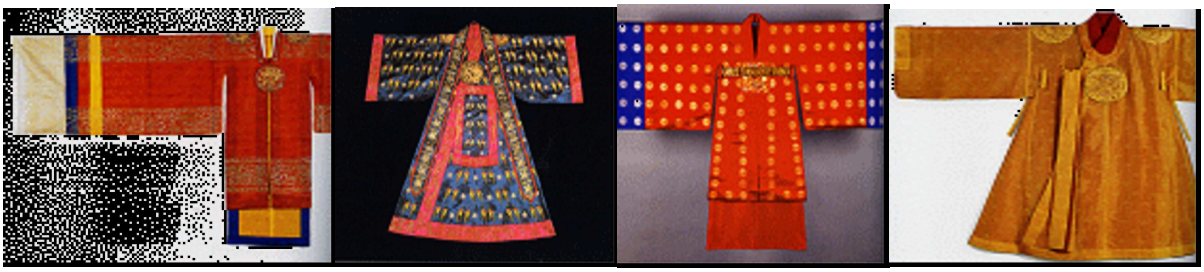
복색을 살펴보면 왕의 제복은 청색빛을 띠는 흑색이며, 조복은 붉은 색인 강색[98]이었으며, 공복은 자색, 상복은 조선초기에는 청색, 중기에는 대홍색(帶紅色)[99], 말기에는 고종황제때 황색이었다.[100] 왕비의 적의<그림14>는 홍색에서 국말에는 청색으로 바뀌었다. 왕비는 적원삼<그림14>, 비빈은 자적원삼 공주와 옹주는 녹원삼이었다. 조선시대의 관복색은 고채도의 원색을 사용하였으며 색이 선명하고 짙을수록 높은 신분을 뜻한다. 홍색이 왕, 왕비, 고급관리의 복색으로 사용 된 것은 귀색(貴色)으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를 보인다.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황의홍상을 입었고, 시집갈 때는 녹의홍상을 입었다. 오방색을 중심으로 정색은 의복의 상의로 보여지고 간색은 하의, 내의, 안감의 색으로 사용되었다. 정색의 복식은 신분이 높음을 나타내고 간색의 복식은 신분이 천함을 나타낸다. 양의 색인 적색과 청색은 길한 의식에서 보여지고 음의 색인 백색과 흑색은 흉례에 사용되었다. 복식에 나타난 배색 또한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하여 원 색과 보색이 대비되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였다. 양기가 강한 적색과 청색의 배색은 우주관의 기본 요소로 음양을 생각하고, 조화 속에 양이 음보다 우세할 때 복이 온다고 믿었다. 이러한 민속신앙적인 것은 색동에도 나타난다. 색동에는 길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 어린이들의 복식에 많이 사용되었다.[101]

생활 속에서도 음양오행사상이 들어간 민속신앙적인 면이 곳곳에 보인다. 붉은 색은 권력을 상징하는 색 이며, 또 귀신을 물리치는 의미로 쓰였다. 양(陽)의 의미인 붉은 색이 음(陰)인 귀신을 물리친다는 것을 뜻한다. 조선시대는 음양오행사상에 따른 색채 사용이 어느 시대보다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97) “한국색채학회, *op. cit.*, p.98."
98) 강청색 [鋼靑色] [명] 강철의 빛깔과 같이 검푸른 색. [준말]강색(鋼色).
99) 붉은 빛을 띤 색이다.
100) “음정선, *op. cit.*, p.34."
101) “음정선, *op. cit.*, pp.35-36."

[그림 14] 조선시대의 의복



홍원삼 적의 노의 익선관포

[그림 15] 음식의 오방색

김치

다식

구절판

신선로

비빔밥

오색송편

출처: http://blog.empas.com/ghkdwp10

제3장 한국의 색이름체계

제1절 색이름의 중요성

색은 무수히 많은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 색이름을 사용한다. 그냥 사물을 보는 것보다 그것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기억하기 쉽다. 색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색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반대인 사람은 색에 대해 잊어버린다.

사피어(Edward Sapir, 1884.1.26~1939.2.4) 의 논문과 워프(Benjamin L. Whorf USA, 1897-1941)의 논문의 이론에 사람들이 색을 알고 기억하는 일은 그들이 사용하는 색이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102] 이 가설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언어 상대성(linguistic relativity)과 언어결정론(linguistic determinism)이 그것이다. 전자는 문화간의 언어 차이로 인하여 문화마다 인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강한 주장으로 Whorf가 더욱 강하게 지지하였던 것이다. 인간의 눈은 35만 가지의 다양한 색상, 명도, 채도를 구별할 수 있으며 인간의 두뇌는 색채의 미세한 변화들을 구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색채를 구별하기 위해 색이름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색채표현 어휘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대부분 검정, 흰색, 빨강, 초록, 노랑, 파랑, 갈색, 자주, 분홍, 회색 등의 몇 가지 색이름만이 보편적으로 통용 될 뿐이다.[103]

언어학적 입장에서 보면 색채는 언어가 있음으로 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외부의 색채를 눈으로 경험하는 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언어의 색채 언어가 지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색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104] 그래서 색이름은 색을 표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기호체계와 같다. 한국 산업규격은 164색을 관용색 이름으로 구분되며 미국색채협의회(ISS-NBS)는 일반색명267색, 외국어원어 30,000색명으로 검색된다.[105]

체계적으로 색명을 구분하고 있지만, 외래어들은 쉽게 사람들에게 색이 인식되기 어렵다. 한 가지 색을 여러 가지 말로 나타낼 수 있는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관용색명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체계화 하였다. 감각어가 발달해 있는 우리말

---

102) 양지현, "색채 감성언어 표현과 전달을 위한 색이름 교육방안 고찰(색의 공감각적 이미지 표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 교육대학원, 2005, p.34.
103) 박은주, 『색채조형의 기초』(미진사, 2004), p.176
104) "양지현, *op. cit.*, p.35."
105) "*ibid.*, p.42."

은 특징 중 하나이며 그중 색채어가 다채롭게 분화 되었다. 색채어는 색감차이나 의미 변별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것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색이름으로 분류되면 우리 정서에 맞으며 빨리 색감을 익힐 수 있다. 오방색의 기본색인 '검다, 희다, 붉다, 푸르다, 누르다'를 기본으로 색의 다양한 언어를 볼 수 있다. 색채어를 규격화 한다면 기억화 될 것이다.

제2절 이론적 체계

1. 한국산업규격(KS)

우리나라의 색 표시법은 먼셀 컬러 시스템을 1968년 문교부(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 산업규격으로 채택하였다. 현재 한국 산업 규격에서 사용되는 기본 색 이름은 먼셀의 10색상환에 근거로 개정(2003년12월)되어 유채색 및 무채색의 기본색 이름에 수식어를 붙여 계통적으로 표현하도록 되어있다. 채도의 규정은 색의 맑음, 색의 선명도, 색의 순도로 규정하고 있다. 채도에 관련된 용어는 국제조명위원회(CIE)에서 규정한 3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선명도의 규정은 시료 면이 유채색을 포함하고, 보이는 정도에 따라 시감각의 속성으로 채도에 대한 종래의 정의보다 직관적인 개념을 말한다.[106] 기본 색명은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가 기본 색상이었으나 분홍, 갈색이 추가되어 12개로 구성되었다.<표5> 교육부에서도 색상환을 기본 색명으로 사용하여 제안하였는데 교육부의 색상환은 개정 이전 기본 색명에 2색을 더하여 12색의 기본 색명을 지정하고 있다. 개정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10가지 기본 색 이름에 분홍과 갈색을 추가하였으며 녹색으로 변경하고, 흰색과 검정을 순우리말 어휘인 하양과 검정으로 대체하였다. 또 기본 색 이름 앞에 붙여 색 이름을 꾸미는 색 수식어는 기존의 '~띤'을 '~ㄴ'형이나 단음절형 '~빛'으로 사용하도록 했다.[107]

조합 색 이름의 앞에 붙는 색 이름에는 색 이름 수식형, 뒤에 붙는 색 이름을 기준 색 이름이라 부른다. 기본색이름을 조합하는 방법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기본색 이름이 수식형 이며, 빨간, 노란, 파란, 흰, 검은 등이 있다.

둘째, 색 이름을 포함한 단음절 색 이름 형으로 적, 황, 녹, 청, 자, 남, 갈, 회, 흑 등이다.

셋째, 수식형이 없는 2음절의 색 이름에 '빛'을 붙인 수식형으로 초록빛, 보랏빛, 분홍

106) 박현일, 『색채학 사전』 (국제 출판, 2006), p.226.
107) "양지현, *op. cit.*, p.25."

빛, 자줏빛, 등으로 표현 할 수 있다.[108]

빨간 주황, 노란초록, 파란 보라, 초록빛 갈색, 보랏빛 하양, 검은 남색, 검은 갈색 등의 60개의 조합색 이름 표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밝기나 채도에 관련된 유채색의 수식형용사에서 '해맑은', '짙은', '칙칙한' 등은 각각 '선명한', '진한', '탁한'으로 바꾸고, '흐린'이란 표현이 형용사의 표준 색 이름 수식어로 추가됐다.<표6>

색상을 나타내는 기본색이름, 톤의 수식어, 그리고 무채색 수식어를 모두 조합하여 나타내는 것이 계통색 이름이다. 계통색을 사용하는 장점은 적은 수의 단어로 많은 색을 표현하며, 대략의 색채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반면 계통색 이름은 언어를 통하여 전달하기는 쉽지만 톤 내부에서도 범위가 넓어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한 더욱 개략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밝은, 어두운, 연한, 회, 어두운, 기본 색 이름 등으로 더욱 축약할 수도 있다.<표6>

위의 기준에 따라 기본색으로 구성된 조합 색 이름은 모두 53개이며, 계통색 이름은 202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 부사'아주'와 형용사를 중복할 경우에는 색채 공간을 약 250~280개 영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유채색의 기본색이름 12개와 무채색의 기본색이름 3개의 상호관계는 다음 장과 같다.

108) 윤혜림, 『색채지각론과 체계론』 (도서출판 국제, 2008), p.138.

[표 4][109] 유채색· 무채색의 기본 색이름

	기본색이름	약호	대응영어	3속성에 의한 표시
유채색	빨간(적)	R	red	7.5R 4/14
	주황	O	orange	2.5YR 6/14
	노랑(황)	Y	yellow	5Y 8.5/12
	연두	YG	yellow green	7.5GY 7/10
	초록(녹)	G	green	2.5G 4/14
	청록	BG	blue green	10BG 3/8
	파랑(청)	B	blue	5PB 4/10
	남색(남)	bV	bluish violet	7.5PB 3/10
	보라	bP	bluish purple	5P 3/10
	자주(자)	rP	purple	7.5RP 3/10
	분홍	Pk	pink	10RP 7/8
	갈색(갈)	Br	brown	5YR 4/8
무채색	하양(백)	Wh	white	
	회색(회)	Gy	(neutral) grey(영) (neutral) gray(미)	
	검정(흑)	Bk	black	

비고: ( )속의 색 이름은 조합색 이름의 구성에서 사용한다.

109) “윤혜림, *op. cit.*, p.138."

[표 5][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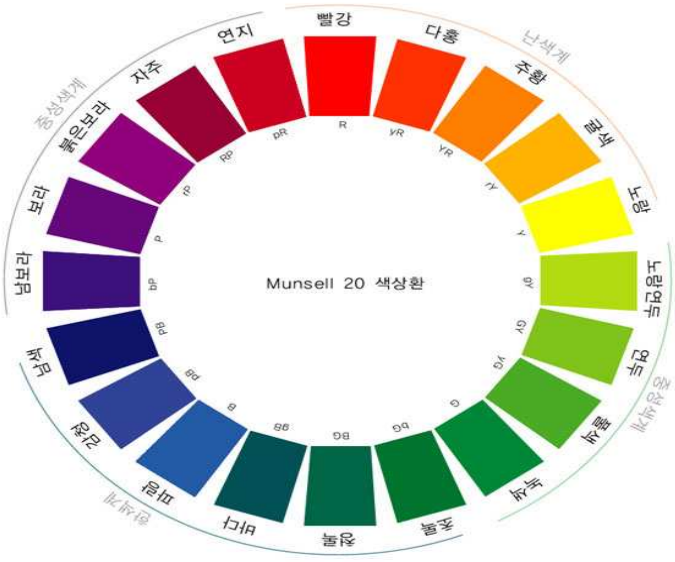
	유채색	무채색
개정 전	빨강(적), 주황, 노랑(황), 연두, 녹색, 청록, 파랑(청), 남색, 보라(자), 자주(적자)	흰색, 회색, 검정
개정 후	빨강(적), 주황, 노랑(황), 연두, 초록, 청록,파랑(청), 남색, 보라, 자주(자), 분홍, 갈색	하양, 회색, 검정

[표 6]

개정 전	해맑은, 밝은, 짙은, 연하, 칙칙한. 어두운, 아주연한, 밝은회, 회, 어두운회, 아주 어두운
개정 후	선명한, 흐린, 탁한, 밝은, 어두운, 진(한), 연(한), 흰, 검은

*필요시 '아주'를 수식형용사 앞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16] 20색상환



110) "양지현, *op. cit.*, p.26."

2. 한국색채연구소(KCRP, Korea color research institure)

1980년대 KBS에서는 컬러 방속 제작을 위해 색상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였지만, 체계적인 기본 색채 시스템과 국내 색채 연구 관련 자료가 없어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장애 요소가 되었다. KBS는 공익차원에서 컬러 방송을 위한 업무 이외에 본격적인 색채 연구를 위해 색채 표준화 작업, 색채 교육용 교재 제작, 기술영사, 환경색상 연구팀을 확대 개편하여 한국색채 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두었다.

색채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 되는 동안 점점 언론기관으로서 국익 차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능률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함을 느끼고, 인적·물적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따라서 KBS한국색채연구소가 쌓아온 기술과 연구물의 저작권, Royalty를 KBS에서 무상으로 공여 받는 조건으로 연구소의 기구 및 인원의 일부를 승계를 받아 공익 재단법인 한국색채연구소가 출범하게 되었다. 한국색채연구소는 색채 표준화의 정착과 더불어 환경색채 설계,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영상 디자인의 광범위한 부문까지 계속 연구하고 있다.[111]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서 현재 다양한 색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우리말 색 이름 사전」이란 책을 발간하고 색입체, 색채표본 각종 교육용 자료 발간하여 보급하였지만, 고유어는 체계적으로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3. 미국 ISCC-NBS의 색명법

ISCC-NBS 색명법은 전미색채협의회(Inter Society Color Concil: ISCC)와 미국국가표준국(National Bureau of Steandard: NBC)과 공동 연구로 30여년 간의 연구 끝에 1955년에 색명사전(Dictionary of Color Names)을 발간한 것으로 오늘날 한국공업규격(KS), 일본공업규격(JIS)을 비롯되어, 세계 여러 나라의 색 이름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 ISCC-NBS의 색명법은 먼셀의 색입체를 267개의 단위로 나누어 각 단위마다 예술, 과학, 산업 부문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이름과 일치하도록 만든 것이다.[112] 한국의 KS와 일본의 JIS 등에서 제정한 색명의 모델이기도 하며 1955년부터 1976년까지 연구 결과로 디지털 부분과 색채 처방이 추가되었다. 또한 M(일반적분류), P(인테리러

111) “박현일, *op. cit.*, p.228."
112) 최영훈, 『색채의 원리와 활용』 (미진사, 2004), p.47.

컬러), SC(토양색) 등 14개 분류로 정리되어 기능적인 분류가 추가되었다.[113)]

현재 ISCC-NBS(National Bureau of Steandard)에서 ISCC(Inter-Society Color Council)-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먼셀 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색 이름은, 무채색의 명도단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그 이름을 White(W), light gray(L.Gy), mediumm gray(med.Gy), dark gray(d.Gy), black(Bl)으로 부른다. [114)]그리고 색상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앞에 붙여서 그 무채색에 가까운 유채색을 표시하는 수식어이다. 기본 색명[115)]은 Red, Orange, Yellow, Geern, Blue, Violet, Purple 이며 추가로 보조색은 Pink, Brown, Olive이다. 색상수식어는 pinkish, brownish, redish, yellowish, geernish, blueish, purplish이다. 명도가 높은 것은 light(l.), 명도가 낮은 것은 dark(d.)이고, 여기에 very를 붙여서 very light(v.l.) 와 very dark(v.d.)를 추가한다. 색채의 채도가 높은 것은 strong(s.), vivid(v.)로 나타나고 채도가 낮은 것은 grayish(gy.)이다. 명도와 채도에 따라 pale(p.), light grayish(l.gy.), dark grayish(d.gy.), blackish(bl.), brilliant(brill.), deep(dp.)으로 나뉘며, 여기에 very를 사용하여 very pale, very deep을 쓴다.[116)]<표 8,9,10>

색상의 기호와 색상 수식어의 [표 7]는 다음 장에 있다.

113) “양지현, *op. cit.*, p.29."
114) “양지현, *op. cit.*, p.29."

115) 색에만 관련될 뿐, 특별한 사물을 지칭하거나 그로 인해 이미지를 연상시키거나 다른 색을 함께 연상시키지않는 색명이다.
116) “양지현, op. cit., p.30."

[표 7] 색상기호와 색상 수식어[117]

색상기호	색상	약호	색상수식어
PK	PINK	pk	pinkish
R	RED	r	redish
O	ORANGE		
BR	BROWN	br	brownish
Y	YELLOW	y	yellowish
OLBR	OLIVE BROWN		
OL	ONIVE		
OLG	OLIVE GREEN		
YG	YELLOW GREEN		
G	GREEN	g	geernish
BG	BLUISH GREEN		
B	BLUE	b	blueish
V	VIOLET		
P	PURPLE	p	purplish

117) “윤혜림, *op. cit.,* p.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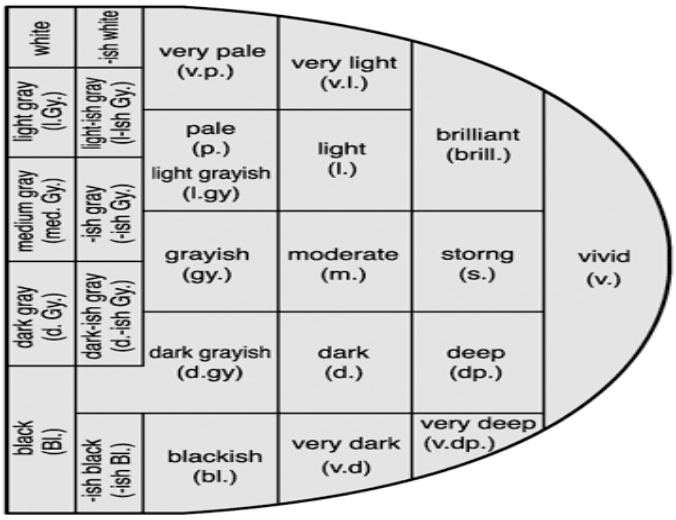
[표 8] 톤기호[118)]

약호	톤
vp	very pale
p	pale
vl	very light
l	light
bt	brilliant
s	strong
v	vivid
dp	deep
vdp	very deep
d	dark
vd	very dark
m	moderate
lgy	light grayish
gy	grayish
dgy	dark grayish
dk	blackish

비고 : ISCC-NBS 색상 수식어 배열, ISCC-NBS의 컬러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118) “윤혜림, *op. cit.,* p.134."

[그림 17] ISCC-NBS 색상 수식어 배열



[그림 18] ISCC-NBS의 컬러 시스템

4. 색의 삼속성과 먼셀 표색계

가. 색상(色相, Hue)

스펙트럼이나 무지개에서 보이는 색을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하랑, 남색, 보라의 7색으로 모든 색이 구별되는 속성을 색상이라 한다. 색상을 둥글게 배열한 것을 색상환[119] 또는 색환이라고 한다. 색상환은 스펙트럼의 색상에 자주색이나 연지색[120]을 첨가하여 시계방향으로 둥글게 배열하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환성을 가지고 있다. 색상환에서 거리가 가까운 색은 색상 차가 작다고 하여 유사색 또는 인근색이라고 하고, 거리가 먼 색은 색상 차가 크다고 하여 반대색이라 한다. 정반대 쪽의 색은 보색관계의 색이다.[121]

나. 명도(明度, value)

[그림 19] 명도와 채도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척도화한 것은 명도<그림19>라고 한다. 즉, 어떤 색에 흰색 또는 검정색을 더하면 다양한 색으로 변화하게 되며 이러한 색의 변화는 밝기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122] 명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백색이고, 가장 낮은 것은 흑색이다. 색이

---

119) 1660년 뉴턴이 최초의 색상환을 고안했다 뉴턴은 백색광을 원친으로 한 프리즘의 스펙트럼을 통해 과학적이며 신비한 색상환을 만들고 음악의 전 음계를 일곱 개 음에 관련지었다. 즉 빨강(C음), 주황(D음), 노랑(E음), 초록(F음), 파랑(G음), 남색(A음), 보라(B음)으로 연결하였다. 스펙트럼을 휘어서 원으로 만든 것은 뉴턴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스펙트럼의 간색과 보라색이 시각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오게 되므로 그 중간에 자주색을 두어 보완했다. 이 같은 뉴턴의 색상환 제안은 색의 체계적 연구에 급속한 진전을 가져왔다.

120) 짙은 보라기미의 빨강이며, 패각충의 깍지진디를 원료로 하는 염료로 염색된 색이다.

121) 박혜원, 『색 읽고 보는 눈』 (도서출판 양지, 2002), p.74.

122) 김옥랑, “색채의 우리말 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p.6.

지니는 밝기의 정도는 빛의 반사율을 말하며 빛을 많이 반사하는 물체는 밝게 보이며, 빛을 100%완전히 반사하면 완벽한 백색이다.[123] 명암의 기준 척도로 무채색이 잘 쓰이며 단계별로 나타나는 밝기의 차를 보여는 것을 명암단계이다. 이 명암단계는 150단계정도 구별할 수 있지만 보통 무채색을 11단계로 구분한다.

명도는 먼셀의 법칙에 따라 N(Neural)으로 표시하여 N10은 하양이 되고, N0은 검정이 된다. 명도 5 또는 명도7 등의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명도 차이에 의한 효과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색의 경우 명색(明色)이 주가 되면 밝고 부드러운 톤(tone)[124]을 이루고, 암색(暗索)이 주가 되면 어둡고 수수한 톤을 이룬다.[125] 명색과 암색을 적당히 명도차를 두면 배색이 명쾌한 효과를 줄 수 있다.

명도단계를 3단계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고명도(light color): 10도~ 7도(4단계)
2. 중명도(middle color): 6도~4도(3단계)
3. 저명도(dark color): 3도~0도(4단계))

다. 채도(彩度, chroma)

채도<그림19>는 색채의 강하고 약한 정도를 말한다. 색이 순수할수록 채도가 높다고 하고 탁하거나 흐릴수록 채도가 낮다고 한다. 채도의 고저는 그 색에 상당하는 명도를 가진 회색과 비교하여 회색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채도가 낮다고 말하며, 회색과의 사이에 공간적인 거리가 생겨 색상의 특징 이 보다 명확하게 될 수록 채도가 높은 색이 된다.[126] 채도 단계의 수는 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순색[127]이 중간 정도의 명도를 지닌 색에서는 채도 단계가 많아지게 되며 순색이 밝은 명도이거나 어두운 명도의 색에서는 단계가 적어진다.

라. 색입체

색의 3속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색입체<그림20>이다. 색은 색상, 명도, 채도의 3속성을 지니고 있다. 색은 원으로, 명도는 직선으로, 채도는 방사선으로 배열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양을 위로하고 검정을 아래로 하며 명도 순으로 무채색을 중심으로 둘레에 스펙트럼 순으로 색상환을 배열하고 색입체 무채색 축의 각 명

---

123) “박혜원, *op. cit.*, p.74."
124) 색상과는 관련이 없으며 명도와 채도를 동시에 작용해서 색의 상태를 만드는 것을 톤이라고 한다.
125) “최영훈, *op. cit.*, p.11."
126) “김옥랑, *op. cit.*, p.9."
127) 각 색상 중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이며 가장 깨끗하고 선명한 색으로 유채색에만 있다.

[그림 20] 색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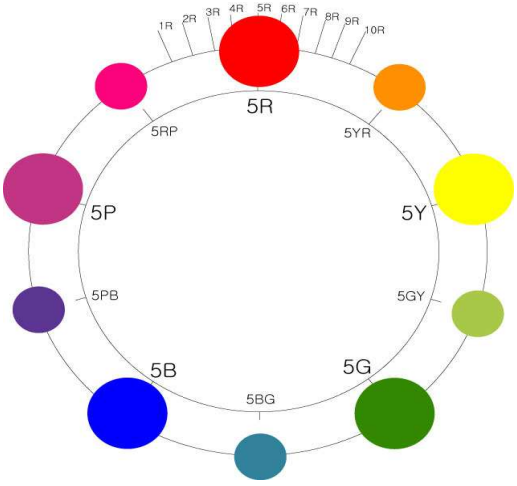
도단계에서 색상환의 바깥쪽을 향해 톺은 채도가 되도록 배열한다. 색입체를 무채색 면을 포함한 수직면으로 자르면 무채색 축의 좌우에 동일 색상면이 보인다. 동일 색상면을 위로 갈수록 명도가 높고 아래로 갈수록 낮다. 명도가 높은 색은 명색(明色 light color), 명도가 낮은 색을 암색(顔色, dark color), 중간 명도의 색을 중간색(中間色, middle color)라 한다. [128]

마. 먼셀의 표색계

먼셀(Albert H. Munsell, 1858~1918)의 이론은 물리학자 헬름홀츠의 이론인 색채의 3요소에 의한 계통 배열에서 출발한다. 1905년 「색채기호(A Color of Notation)」, 1913년 「먼셀표색계 도해서(Atlas of the Munsell Color System)」를 출간하여 연구 결과가 나왔고, 먼셀의 아들이 1929년에 「먼셀 색상서(Munsell Book of Color)」를 출간하였다.

미국광학회의 측색위원회(側色委員會)에서는 먼셀의 이론을 철저히 연구해 발표하여 지금의 수정 먼셀 색표계(Munsell Renotation System)라 불리는 표색법이다.

[그림 21] 먼셀색상환



빨강(R), 노랑(Y), 초록(G), 파랑(B), 보라(P)의 다섯 가지 주요 색상과 주홍(YG), 황록(GY), 청록(BG), 청자(PB), 적자(RP)의 다섯 가지 중간색상을 더해서 P. YR. Y. GY. G. BG. B. PB. P. RP를 순서대로 10색상으로 하고 이색들을 각기 10단위로 분류, 100색상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빨강의 세 번째는 3R, 주황의 일곱 번째는 7YR이라고 한다. 중심에 있는 색은 5R, 5RY, 5Y 등이며 순색이 된다. 따라서 5R보다 큰 수의 색상은 노란 빨강이 되며, 5R보다 작은 수의 색은 보랏빛 빨강이 된다. 먼셀 색상환에서 직경의 양 끝에 놓인 두 색상은 서로 보색 관계이다.[129] 실용화된 색표는 5를 기준으로 그 중간색을 포함한 5 및 10 위치의 20색상

128) "최영훈, op. cit., p.52."
129) "최영훈, *op. cit.,* p.53."

<그림21>이거나, 다시 그 중간까지 2.5, 5, 7.5, 10위치의 40색상이다.

앞서 먼셀의 명도에 대해 알아봤지만, 다시 말하면 무채색을 기준으로 모든 빛을 흡수하는 이상적인 검정을 0으로 하여, 모든 빛을 반사하는 이상적인 흰색을 10으로 해서 그 사이의 밝기 단계를 감각의 차이가 등 간격이 되도록 분할하고 10/, 9/, 8/ 등과 같이 기호로 표시한다. 명도의 번호가 클수록 명도가 높고, 작을수록 명도가 낮다. 이상적인 흰색과 검정을 만들 수 없으므로 9.5~1.0이 사용된다.[130]

채도는 색상・명도가 일정한 배열에 있어서 무채색을 0으로 하고, 색의 선명한 정도의 증가에 따라 감각의 차이가 등간격이 되도록 1, 2, 3, 4...와 같이 차례로 커지도록 설정하고, /1, /2, 3/...기호로 표시한다. 5R에서 14와 5BG에서 8은 많은 차이가 난다.

130) “윤혜림, *op. cit.*, p.95."

제4장 우리말 색채어 표현

제1절 우리말 색채어의 개념

색채를 언어로써 표현한다는 것은 시각적인 감각 현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다'라는 것은 빛으로 인해서 색이 보이는 것이므로 자연 속에서 보여지는 색채를 객관적인 각도로 보는 것은 빛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색채는 각각의 이름을 붙여 사용하며 구별되어지고 있다. 그 색 이름들은 빛을 통해 전달되는 색채가 주변 환경과 경험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생득 되어가는 과정을 거쳐 인식의 고정화를 가져온게 된다. 즉 색채어[131]란 주위 환경이나 물체의 빛깔을 통한 색감각의 결정이며, 이것이 곧 언어화된 약속으로서의 기호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색감각의 느낌과 감정이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언중들의 공통된 감정은 의미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132] 색은 무수히 많으나 언어 체계가 갖는 한계가 있다. 색채가 하나의 특정한 색깔을 지칭했다고 할 수 없으며 언어의 내재적 요소에 의해 하나의 빛깔이 다채롭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 색채어의 다양한 발달은 인지의 발달을 의미한다.[133] 색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인간의 생활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중국의 경우, 비단에 관한 염색과 관련하여 색채어가 나타날 만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134] 문화, 문명이 발달할수록 색깔이 다양해지고 언어로써 색깔을 표현하려는 하는 노력은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게 되므로 다양한 색채어가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의 색채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에 당(唐)으로부터 불교가 유입됨에 따라 벽화에 단청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색채 사용이라고 하였다.[135] 그 이전 시대인 선사시대에도 동굴 벽화에 색칠되어진 것으로 보아 그 시기에도 색채에 관한 언어를 사용하였을 듯 싶다.

색채어의 어원은 '검다'는 '그을음, 밤(夜)>검다(黑)', '희다'는 '해(日)는 희다(白)', '붉다'는 '불(火)>붉다(紅, 赤)', '푸르다'는 '풀(草)>푸르다'로, '누르다'는 '흙>노랗다'로 여기고 있다.[136]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음양오행사상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

131) 주위 환경이나 물체를 통해 나오는 빛 파장을 관찰 또는 지각하여 색채로 인식하여 언어화 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132) 나혜석, "우리말 색채어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p.9.
133) "*ibid.*, p.11."
134) 윤기한, "현대국어 색채어의 의미 확장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6, p.12.
135) "나혜석, *op. cit.*, p.15."

히 보여주고 있다. 문화와 환경에 의해 각 나라마다 색에 대한 의미와 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먼셀표색계와 오스트발트계처럼 기호화하여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정작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색채어를 기호화하여 표준화되지 못했다.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색들 중에 쓰이고 있는 색이 각 나라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먼셀표색계 바탕으로 하였다. 한자색과 외래어 색은 쉬운 색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색이 아니라 머리 속에서 연상되어지는 색이 많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색채어의 범주를 일반적으로 시각으로 인식 또는 인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표현한 어휘로 제한한다.[137]

제2절 우리말 색채어 표현 설정

색채를 언어화 하여 표현한 것이 색채어인데, 다양한 색채어를 구분하고 분류하여 기준을 정해야 한다. 색채어는 전통적으로 오색(五色)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이유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음양오행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한글 창제의 기저에도 이러한 개념이 뼈대를 이루고 있으며 색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138] 적(赤)· 황(黃)· 청(靑)· 흑(黑)· 백(白)이 오색(五色)이며, 우리말의 고유어는 '붉다', '누르다', '푸르다', '검다', '희다'에 여러 가지 접사[139]를 붙여 우리말에서 한 색의 영역에 속하는 여러 색을 다양하게 나타난다. 5가지 색을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여 본다.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붉다, 누르다, 푸르다, 검다, 희다'를 중심으로 한다.

②모음 ㅏ:ㅓ의 대립에 의해 약(弱),강(强)을 타나내는 농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ㅗ:ㅜ의 대립은 크고 작음을 나타낸다.

③ 명도 측면에서 ㅏ<ㅗ<ㅓ<ㅜ의 순서로 순위를 정한다.

④ 합성색채어인 경우 무채색과 유채색의 기본어가 합성인 경우 무채색을 우선으로 한다.

⑤ 유채색과 유채색의 기본어가 합성인 경우, 채도가 높은 쪽이 낮은 쪽보다 먼저 의미의 중심이 되게 한다.

---

136) "윤기한, *op. cit.*, p.12."
137) "윤기한, *op. cit.*, p.13."
138) "나혜석, *op. cit.*, p.14."
139)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語根)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⑥ 접두사 '새-/샛-/시-/싯-'의 결합은 모음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음운론적 제약을 갖으며, 새-,시-는 색채의 짙음이 심함을 말하며 [+명도][-어둠], 시-의 경우[-명도][+어둠]을 나타낸다. 접두사 샛-, 싯-은 모음교체와 받침의 사이시옷 첨가 여부에 따라 [+어둠]의 정도와 새-, 싯-보다 훨씬 '더욱 더 짙은'의미를 강조해준다.
⑦ 접미사 '-테테-, -태태-, -퇴퇴-, -튀튀-, -티티-, -틱틱-' 우중충한 느낌과 색의 짙음을 나타내며, 낮은 채도, 탁함을 뜻한다.
⑧ 접미사 '-칙칙-'은 산뜻하지 않음의 부정의 의미를 두며, 채도가 낮다.
⑨ 접미사 '-숙숙-. -속속, -슥-'은 '수수하고 걸맞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긍정의 느낌을 가진다.
⑩ 접미사 '-스름-, -스레-, -레-, -름-'은 긍정의 느낌을 주며 중립적이다. 특히 '-레-'는 고운 느낌을 지니고 있다.
⑪ 접미사 '-잡잡-, -짭짭-, -접접-, -쩝쩝-'은 칙칙함과 연함을 보여주며, '-잡잡-, -짭짭-'의 경우 [-칙칙함], [+연함]을, '-접접-, -쩝쩝-'은 [+칙칙함], [-연함]을 뜻을 지닌다.
⑫ 접미사 '-족족-, -죽죽-'의 경우 [-명암], [-순도], [-옅음]의 의미를 가진다.[140)]

색채어의 설정기준을 12가지로 나눠보았다. 색채어는 빛으로 인해 지각하여 색채를 인식하므로 색의 세 가지 속성인 색도, 명도, 채도로 나누어 끊임없이 연구가 이어져 왔다. 5가지 색상의 색채어가 기본 의미이다. 색채어는 기본 의미 외에도 다른 의미도 있으며 색의 차이 외에도 감정이나 태도에 따라 차이가 드러난다. 빛이 가지는 속성 외에 색채어가 갖는 의미를 확장되는 양상을 형태별로 색채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연구를 해왔지만 본고에서는 색을 의미하는 색채어를 다루고자 한다.

또한 색채어와 색이름의 관계를 정리하고 색의 3속성을 바탕으로 색상어, 명도어, 채도어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색이름은 관용색명과 계통색명, 한자로 이뤄진 색명등이 있다. 색채어는 색이름에 비해 더 많으며, 색을 지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색채어를 만들어 쓰는 것은 색채어만이 갖는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색채어는 색이름을 포함한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등의 형태로 나타나 포괄적이라 색채어는 색이름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140) "윤기한, *op. cit.*, pp.16-35."

<색이름과 색채어의 관계>

형 빨갛다, 뻘겋다. 노랗다, 누렇다...

색채어 ➡ 부 불긋불긋, 누릇누릇... ➡ 색이름: 빨강, 노랑, 파랑...

동 빨개지다, 누래지다...

색이름은 색채어와 부분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감각적 반응이나, 태도, 감정을 전달하는 기능이 없으며 색채어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색을 표준화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색의 설정 기준을 부연 설명하자면 ②,③과 <표 9, 10>을 보면,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에 의해 설정 기준을 잡았으며, 이는 음성모음「ㅓ, ㅜ, ㅔ, ㅝ, ㅟ...」, 양성모음 「ㅏ, ㅗ, ㅐ, ㅘ, ㅚ...」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붉다'와 '누르다'를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교체 될 경우로 나눠 채도와 명도 축에서 변화를 찾는다. '발갛다'와 '벌겋다', '노랗다'와 '누렇다'의 경우, 양성모음에서 음성모음으로 교체될 대 색채 어휘 변화에 따라 색채가 채도의 축에서는 가까워지고 명도 축에서는 낮아진다. '누렇다'는 '노랗다'의 비해 명도는 줄고 채도는 늘어서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갖는다.[141]

[표 9]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양성모음	작음 적음 예리함, 가벼움, 맑음, 엷음, 셈, 빠름의 의미	ㅏ, ㅗ, ㅐ, ㅘ, ㅚ...
음성모음	큼, 많음, 어두움, 둔함, 탁함, 두꺼움, 약함, 느림의 의미	ㅓ, ㅜ, ㅔ, ㅝ, ㅟ...

[표 10] ㅏ: ㅓ음소, ㅗ : ㅜ 음소, ㅐ : ㅣ 음소

ㅏ : ㅓ 음소	까맣다 : 꺼멓다 / 빨갛다 : 뻘겋다 하얗다 : 허옇다 / 파랗다 : 퍼렇다
ㅗ : ㅜ 음소	노랗다 : 누렇다
ㅐ : ㅣ 음소	새빨갛다 : 시뻘겋다 / 새카맣다 : 시커멓다 / 새파랗다 : 시퍼렇다 / 새하얗다 : 시허옇다

141) "윤기한, *op. cit.*, p.17."

④에서 예를 들면 '검푸르다'가 '푸른 색에 검은 빛이 도는' 것이며, '검은 색에 푸른 빛이 도는' 것이 아니다.

⑥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순서와 결합하여 보면 된다. 접두 파생 색채어는 '새까맣다, 시꺼멓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샛노랗다, 싯누렇다, 새하얗다, 시허옇다'등이 있다.<표11,12>

새까맣다 : 시꺼멓다 / 새까맣다 : 시커멓다 / 샛노랗다 : 싯누렇다

[+명도] [-명도] [+명도] [-명도]

[밝음] [+어둠] [밝음] [+어둠] [+어둠] [+어둠]

[표 11] 색채어의 뜻

색채어	뜻
까맣다	아주 검다, 매우 검다
새까맣다	아주 짙게 까맣다
샛까맣다	더할 수 없이 새까맣다
빨갛다	진하고도 곱게 붉다
새빨갛다	아주 짙게 빨갛고 새뜻하다
샛빨갛다	더할 수 없이 새빨갛다[142]

[표 12] 기본 오색의 색채어의 새-,시-,싯-,샛-

검다	희다	붉다	푸르다	누르다
새까맣다	새하얗다	새빨갛다	새파랗다	샛노랗다
새카맣다	새하애지다	새빨개지다	새파래지다	샛노래지다
새까매지다	허옇다	시뻘겋다	시퍼렇다	싯누렇다
새카매지다	시허예지다	시뻘개지다	시퍼래지다	싯누래지다
시꺼/커멓다			짙푸르다	
시꺼매지다				
시커매지다				

142) 송철의(1992)는 샛까맣다는 까맣다보다 농도가 짙음을 의미하고 새까맣다는 까맣다보다 농도가 옅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았다.

⑦,⑧에서는 접미사[143] '-테테-, -태태-, -퇴퇴-, -튀튀-, -티티-, -틱틱-'과 '-칙칙-'은 둘다 색의 탁함이 연상 된다. '거무테테하다, 꺼무테테하다, 까무테테하다, 가무퇴퇴하다, 까무퇴퇴하다, 거무튀튀하다, 꺼뭍튀튀하다, 누르튀튀하다, 가무티티하다, 거무티티하다, 까무티티하다, 꺼무티티하다. 누리티티하다, 가무틱틱하다, 누르틱틱하다. 불그틱틱하다, 푸르틱틱하다'등이 있으며 채도가 낮고 탁함의 느낌이 난다. '-칙칙-'은 '희다'와 푸르다 계열에 사용되지 않으며 '검다, 누르다, 붉다'계열에 연결되어 '산뜻하지 않음'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거무칙칙하다, 누르칙칙하다, 불그칙칙하다'가 있다.<표15>

⑨,⑩,⑪,⑫에서는 '-숙숙-, -속속-'은 '검다'와 붉다'의 계열에 나타나고, '-스름-, -스레-, -레-, -름-'과 ' -충충-, -총총-'은 '검다' 계열에 연결되고 , '-레-'는 '붉다' 계열에 나타난다. '-족족-, -죽죽-'은 '희다' 계열에는 결합되지 않는다. 이는 [표 13,14,15]를 참고 하여 쉽게 알 수 있다.

[표 13] -숙숙-, -속속-, -슥-

-숙숙- -속속- -슥-	검다	거무숙숙하다, 가무숙숙하다, 까무숙숙하다, 꺼무숙숙하다
	붉다	불그숙숙하다, 볼그속속하다, 발그속속하다, 벌그숙숙하다, 빨그속속하다, 뻘그숙숙하다.
	희다	허여숙숙하다, 하야속속하다.

143) 접미사는 어휘 형성 요소인 접사들 중에서 어근의 뒤에 붙는 의존 형태소로서 접두사와는 달리 한정적 기능 뿐만 아니라 어근의 품사를 전성시키는 지배적 기능도 있다. 파생접미사와 굴절 접미사로 나눈다. 첫째, 파생 접사는 한정된 어근에 결합되어 쓰이는 반면 굴절 접사는 어간의 결합 상태가 광범위하다. 둘째, 파생 접사는 새로운 단어의 파행과 품사의 전성이 가능하지만 굴절 접사는 새로운 단어의 파생이나 품사의 전성은 불가능하다. 셋째,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가 한 어근에 결합하여 함께 쓰일 때는 굴절 접사보다 파생 접사가 앞에 놓인다. 넷째, 파생 접사는 어간의 뜻을 보태 주는 구실을 하며 굴절 접사는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 주는 형태소이다.

[표 14] 접미사에 쓰이는 색채어

-스름-	검다	가무스름하다, 거무스름하다, 꺼무스름하다, 까무스름하다
	붉다	발그스름하다, 빨그스름하다, 벌그스름하다, 뻘그스름하다
	누르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푸르다	파르스름다, 퍼러스름하다, 포르스름하다, 푸르스름하다
	희다	해유스름하다, 해으스름하다, 희어무스름하다, 희스무레하다
-스레-	검다	거무스레하다, 가무레하다, 꺼무스레하다, 까무스레하다
-름-	검다	가무름하다, 꺼무름하다, 까무름하다
-레-	검다	거무레하다, 꺼무레하다, 까무레하다
	붉다	발그레하다, 벌그레하다, 볼그레하다, 불그레하다
-충충- -총총-	검다	거무충충하다, 꺼무충충하다, 가무총총하다, 까무총총하다
-족족- -죽죽-	검다	가무족족하다, 거무죽죽하다
	붉다	볼그족족하다, 불그죽죽하다
	푸르다	포르족족하다, 푸르죽죽하다
	누르다	노르족족하다, 누르죽죽하다
-퉁퉁-	푸르다	푸르퉁퉁하다
	누르다	누르퉁퉁하다
-끼리- -끄레- -끔-	검다	거무끼리하다
	붉다	불그끼리하다
	희다	희끼리하다, 희끔하다
	누르다	누리끼리하다, 누르끄레하다, 노르끼리하다, 누르끼리하다, 누르끄롬하다
	푸르다	푸르끼리하다
-께- / -끼-	누르다	누르께하다, 누르끼하다
	푸르다	푸르께하다, 푸르께하다, 파르께하다, 포르께하다,
	희다	허여께하다

[표 15]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접미사

	붉다	검다	희다	누르다	푸르다
-죽죽/족족하다	○	○		○	○
-끄름하다	○	○		○	○
-므레/무레하다	○		○	○	○
-음하다	○		○	○	○
-데데/대대하다	○	○			○
-뎅뎅/댕댕하다	○	○			○
-숙숙/속속하다	○	○			○
-레하다	○	○			
-으레하다	○				
-쓱하다			○		
-끗하다			○		
-붐하다			○		
-스릅하다			○		
-접접/잡잡하다		○			
-축축/촉촉하다		○			
-충충/총총하다		○			
-칙칙하다		○			
-퉈퉈/퇴퇴하다		○			
-무트름하다		○			
-숭하다		○			
-측측하다		○			
-팅팅하다				○	

[표 16] 계열에 따라 쓰이는 색채어[144)]

	붉다	검다	희다	누르다	푸르다
-으께-				○	○
-으대대-/ 으데데-	○	○			○
-으댕댕/ 드뎅뎅-	○	○			○
-으레-	○	○			
-으름-	○			○	
-으무레-	○			○	○
-으속속-/ 으숙숙	○	○			○
-스레-	○	○			
-족족-/ 죽죽-	○	○			
-웃-	○	○			
-앟/ 엉-	○	○	○	○	○
-끄름-		○			
-스름-		○			
-으잡잡/ 으접접-		○			
-으테테/ 으퇴퇴-		○			
-무트름-		○			
-끔-			○	○	
-퉁퉁-				○	○
새-/ 시-/ 샛-/ 싯-	○	○	○	○	○

'-레하다, -무레하다, 스름하다'는 '정도보다 밝고 엷음'[+명도(明), +농도(淡)]을 나타낸다.
'-숙숙하다, 죽죽하다'는 '정도보다 짙고 어두움'(-명, -淡)을 나타내고, '-죽죽하다'는 색채가 너무 어두워서 본래의 색채를 나타내지 못할 때 쓰인다.
'-께하다, -끼리하다'는 '누르다'와 푸르다'에 결합되어 색채가 엷고 산뜻하지 않음(-明, +淡)을 나타낸다.<표16>

144) 정진주, "우리말 색채어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 대학교 대학원, 1990, p.17.

‘-충충하다, -칙칙하다, -끄름하다, -튀튀하다’는 모두 ‘검다’와 결합하여 쓰인다. ‘-끄름하다’는 매우 어둡게 나타남(-明)을 뜻한다.[145]<표 15,16>

제3절 색채어 분석

1. 붉다

‘붉다’의 어원은 불(火)에서 기원하였다. 불은 원시시대에 사람들에게 생활을 보장해 주고 활동 무대를 넓혀 주었으며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숭배를 했던 것으로 보아 불(火)에서 기원했던 것임을 추론 할 수 있다.[146] ‘불-’을 말밑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가. 파생법

발그대대하다-빨그대대하다-벌그대대하다-볼그대대하다-불그대대하다.
발그댕댕하다-빨그댕댕하다-벌그댕댕하다-볼그댕댕하다-불그댕댕하다.
발그름하다-빨그름하다-벌그름하다-볼그름하다-불그름하다.
발그무레하다-빨그무레하다-벌그무레하다-볼그무레하다-불그무레하다.
발그속속하다-빨그속속하다-벌그숙숙하다-볼그속속하다-불그숙숙하다.
발그스레하다-빨그스레하다-벌그스레하다-불그스레하다-불그스레하다.
발그스름하다-빨그스름하다-벌그스름하다-볼그스름하다-불그스름하다.
발그족족하다-빨그족족하다-벌그죽죽하다-볼그족족하다-볼거죽죽하다.
발긋하다-빨긋하다-벌긋하다-볼긋하다-불긋하다.

예사소리보다 된소리, 거센소리가 어감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147] 강도가 높은 소리일수록 어감은 밝기보다 더 진하며, [+어둠]이 나타나고, 예사소리보다는 된소리가 더욱 어감이 강하며, 붉기가 더 진한 느낌을 준다.[148]

---

145) “김옥랑, *op. cit.*, pp.22-23."
146) "김옥랑, *op. cit.*, p.38."
147) 정인승, “어감표현상 조선어의 특징인 모음 상대법칙과 자음가세법칙”, <한글> 제 6권 제9호, 한글 학회, p.21.
148) "정진주, *op. cit.*, p.7."

2. 검다

‘검다’의 어원은 ‘밤(夜)’에서 나왔으며, 그믈다, 감다, 구물구물하다, 그믐, 가물거리다, 가마괴(鳥) 등이 파생어이다. 밤은 낮과 달리 생명력에 재충전을 불어넣는 휴식의 시간으로 보았다.

가. 파생법

가무끄름하다-거무끄름하다-까무끄름하다-꺼무끄름하다.
가무대대하다-거무데데하다-까무대대하다-꺼무데데하다.
가무댕댕하다-거무뎅뎅하다-까무댕댕하다-꺼무뎅뎅하다.
가무레하다-거무레하다-까무레하다-꺼무레하다.
가무숙숙하다-거무숙숙하다-까무숙숙하다-꺼무숙숙하다.
가무스름하다-거무스름하다-까무스름하다-꺼무스름하다.
가무스레하다-거무스레하다-까무스레하다-꺼무스레하다.
가무잡잡하다-거무접접하다-까무잡잡하다-꺼무접접하다.
가무족족하다-거무죽죽하다-까무족족하다-꺼무죽죽하다.
가무테테하다-거무테테하다-까무테테하다-꺼무테테하다.
가무퇴퇴하다-거무퉈퉈하다-까무퇴퇴하다-꺼무퉈퉈하다.
가마무트름하다-거머무트름하다-까마무트름하다-꺼머무트름하다.
가무트름하다-거무트름하다-까무트름하다-꺼무트름하다.
가뭇하다-거뭇하다-까뭇하다-꺼뭇하다.
새까맣다-새카맣다-샛까맣다-시꺼멓다-시커멓다-싯꺼멓다.
그무레하다-끄무레하다.

‘감,검,깜,껌’으로 이뤄지며, ‘ㅏ<ㅓ’ 순이고, 거센소리가 강한 느낌이라서 예를 들어, ‘가무끄름하다<거무끄름하다<까무끄름하다<꺼무끄름하다’로 순서가 된다.

나. 합성법<표17>

가마노르께하다.
가마반드르하다-거머번드르하다-까마반드르하다-꺼머번드르하다.
가마푸르레하다.
가무칙칙하다-거무칙칙하다-까무칙칙하다-꺼무칙칙하다.
가뭇가뭇하다-거뭇거뭇하다-까뭇까뭇하다-꺼뭇꺼뭇하다.

감노랗다-검누렇다-감노르다-검누르다.
감파랗다-검퍼렇다-감파르다-검푸르다.
감파르잡잡하다-검프르접접하다.
감파르족족하다-검푸르죽죽하다.
거머멀쑥하다-까마말쑥하다-꺼머멀쑥하다.
거머번지르하다-까마반지르하다-꺼머번지르하다.
가무축축하다-거무축축하다-까무축축하다-꺼무축축하다.
가무충충하다-거무충충하다-까무충충하다-꺼무충충하다.
검붉다-검푸르다.

3. 희다

'희다'는 힉(太陽)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국어에서 '해'를 한자어로 白日이라 하고 '대낮'을 白晝라고 일컫는 것은 해(太陽)의 색깔을 '힉다'라고 나타나 '희다'로 된 것이다.

가. 파생법

하얗다-하이얗다-허옇다
해끔하다-희끔하다.
새하얗다-샛하얗다- 시허옇다-싯허옇다.

나. 합성법<표17>

하야말갛다-허여멀겋다.
하야말쑥하다-허여멀쑥하다.
해끄무레하다-희끄무레하다.
해끔해끔하다-희끔희끔하다.
해끗해끗하다-희끗희끗하다.
해뜩발긋하다-희뜩벌긋하다.
해말갛다-해멀겋다-희멀겋다-헤멀겋다.
해맑다-희맑다.
해말끔하다-헤멀끔하다-희멀끔하다.
해말쑥하다-헤멀쑥하다-희멀쑥하다.
해반들하다-헤번들하다-희번들하다.

해반닥해반닥하다-희번덕희번덕하다.
해반드르르하다-헤번드르르하다-희번드르르하다.
해반주그레하다-희번주그레하다.
해반지르르하다-희번지르르하다.
희누르스름하다.
희부옇다-희뿌옇다.
희묽다-희물그레하다.
희불그레하다.
해우스름하다-해유스름하다.
해으스름하다-희으스름하다.
해읍스름하다-희읍스름하다.

'희다'의 합성법의 어휘구조는 '하-, 허-, 헤-, 해-, 희-'이고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이는 반복합성법이 있다.[149]

4. 누르다

'누르다'의 어원은 정확하지 않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전몽수의 놀(獐)설과 최창렬의 논(鍮)설, 최범훈의 눋(焦)설등이 있다. 최범훈의 경우 '누르다'의 경우 파생어로 누룽지, 누린내, 노래기 등이 있으며 노랭이도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써 황금의 색채로 풍유하는 말이다.[150]

가. 파생법

노랗다-누렇다.
노르께하다-노르끼하다-누르께하다-누르끼하다.
노르끄레하다.
노르무레하다-누르무레하다.
노르퉁퉁하다-누르퉁퉁하다-누루텅텅하다.
노름하다-누름하다.
노릇하다-누릇하다.

149) "정진주, *op. cit.*, pp.11-13."
150) "나혜석, *op, cit.,* p.69."

놀놀하다-눌눌하다.
뉘렇다-뇌랗다.
새노랗다-샛노랗다-시누렇다-싯누렇다.
누리끔하다.

나. 합성법<표17>

노라발갛다.
노라노랗다.
노르스름하다-누르스름하다.
노릇노릇하다-누릇누릇하다.
누르디누르다.
누르락붉으락하다.
누르락푸르락하다.

5. 푸르다

'푸르다'의 어원은 프르다(靑)과 플(草)에서 기원하였다. '푸르다'의 사전적 뜻은 '싱싱한 풀이나 맑은 하늘의 빛깔과 같다'와 '과일이나 곡식 따위의 아직 덜 익은 상태에 있다'로 풀이 된다. 靑, 草에서처럼 '푸르다'는 청색, 녹색, 남색을 구분하여 쓰지 않고 같은 의미로 쓰인다.

가. 파생법

파랗다-퍼렇다.
파르께하다-퍼러께하다-푸르께하다.
파르대대하다-퍼르데데하다-푸르데데하다.
파르댕댕하다-퍼르뎅뎅하다-푸르뎅뎅하다.
파르무레하다-퍼르무레하다-푸르무레하다.
파르속속하다-퍼르숙숙하다-푸르숙숙하다.
파르스럿하다-퍼르스럿하다-푸르스럿하다.
푸르등등하다-푸르딩딩하다.
푸르퉁퉁하다-푸르팅팅하다.파릇하다-푸릇하다.

새파랗다-샛파랗다-시퍼렇다-싯퍼렇다.

나. 합성법<표17>

파르스름하다-퍼르스름하다-푸르스름하다.
파릇파릇하다-푸릇푸릇하다.
푸르락누르락하다-푸르누렇다.
푸르디푸르다.
푸르락붉으락하다.
푸르싱싱하다.
검푸르다-검으락푸르락하다.
붉으락푸르락하다.
높푸르다.

[표 17] 다섯 색채어의 합성법[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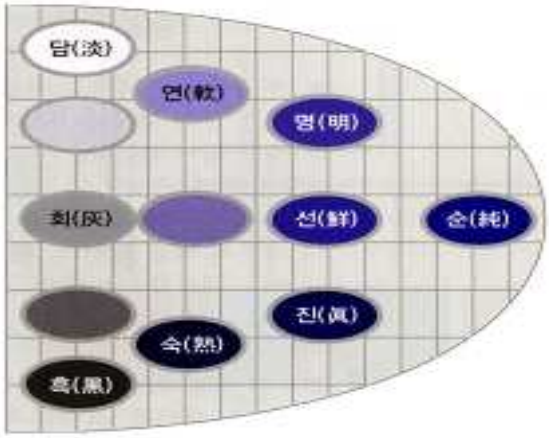
색채어	붉다	검다	희다	누르다	푸르다
붉다	○	○	○	○	○
검다	○	○	○	○	○
희다	○	○	○		
누르다	○	○	○	○	○
푸르다	○	○		○	○
반드르		○	○		
칙칙		○			
말쑥		○	○		
번지르(르)		○	○		
충충		○			
야드르르	○				
-웃-웃	○	○	○	○	○
축축		○			

151) "정진주, *op. cit.*, p.18."

제4절 색의 속성에 따른 의미 특성

색채어에는 명도, 채도로 나뉘며, 색의 선명도도 알아보고자 한다. ‘검다, 희다’는 무채색이므로 명도만 있다. <도판 22>을 보면, 각 톤을 서술하는 한자어는 순(純), 명(明), 선(鮮), 진(眞), 연(軟), 숙(熟), 담(淡), 회(灰), 흑(黑)이다. 여기에서 명도는 명(明)에 -, +을 붙여서 밝고 어두움을 나누었고, 채도는 순(純)에 -, +덧붙혔다. 농담은 담(淡)에 앞과 마찬가지로 하여 구분하였다.

[그림 22] 전통색의 톤 분류



순(純) - 선명한
명(明) - 밝은
선(鮮) - 원색
진(眞) - 짙은
연(軟) - 연한
숙(熟) - 어두운
담(淡) - 매우 연한
회(灰) - 탁한/회
흑(黑) - 아주 어두운

1. 붉다

[표 18] **가. 명도**

붉다	명도	+ 明	밝다	발/ 볼그스름하다, 벌/벌그스름하다
				발/빨긋하다, 벌/뻘긋하다
				발/ 볼그무레하다, 벌/ 불그무레하다
				볼/뿔긋하다, 불/뿔긋하다
				발/ 볼그레하다, 벌/ 불그레하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明	어둡다	발/볼그속속하다, 벌/불그숙숙하다, 발/볼그족족하다
				벌/불그죽죽하다, 불그칙칙하다, 발갛다/벌겋다

[표 19] **나. 채도**

붉다	채도	+純	맑다	발/볼그스름하다, 벌/불그스름하다
				발/볼그무레하다, 벌/ 불그무레하다
				발/볼그레하다, 벌/불그레하다, 발갛다/벌겋다
				새빨갛다/시뻘겋다, 빨그스름하다, 발/빨그름하다
				발/빨그스레하다, 벌/뻘그스름하다
				벌/뻘그름하다, 벌/뻘그스레하다
				불그스레하다, 보/뽀유스름하다, 볼그름하다
				보/뽀유스레하다, 부/뿌유스름하다, 부/뿌유스레하다
				불/뿔그스름하다, 불/뿔그스레하다
		-純	탁하다	발/볼그속속하다, 벌/불그숙숙하다, 발/볼그족족하다
				벌/불그죽죽하다, 빨그대하다
				볼/멀그데데하다, 뻘그데데하다
				불/벌그뎅뎅하다, 볼/발그댕댕하다
				빨그댕댕하다, 뻘그뎅뎅하다

2. 검다

[표 20] **가. 명도**

검다	명도	+明	밝다	가/까무스름하다, 거/꺼무스름하다
				가/까무퇴퇴하다, 거/꺼무퉈퉈하다
				가/까무속속하다, 거/꺼무숙숙하다
				가/까맣다, 거/꺼멓다
		-明	어둡다	가/까무칙칙하다, 거/꺼무칙칙하다
				가/까무족족하다, 거/꺼무죽죽하다

				가/까무끄름하다, 거/꺼무끄름하다, 새까맣다, 시꺼멓다
				가/까무총총하다, 거/꺼무충충하다

[표 21] **나. 농도**

검다	농도	+淡	묽다	가/까무스름하다, 거/꺼무스름하다
				가/까무퇴퇴하다, 거/꺼무퉈퉈하다
				가/까무속속하다, 거/꺼무숙숙하다
		-淡	진하다	가/까맣다, 거/꺼멓다, 가/까무총총하다, 거/꺼무충충하다
				가/까무칙칙하다, 거/꺼무칙칙하다, 가/까무족족하다
				거/꺼무죽죽하다. 가/까무끄름하다
				거/꺼무끄름하다, 새까맣다, 시꺼멓다
	탁함	(純)	탁하다	가/까무레하다, 거/꺼무테테하다
				거/꺼무퉈퉈하다, 거/꺼무레하다

[표 22] **다. 선명도**

검다	선명도	(+鮮明)	뚜렷하다	가/까맣다, 거/꺼멓다, 새까맣다
				가/까무총총하다, 거/꺼무충충하다
		(-鮮明)	흐리다	가/까무퇴퇴하다, 거/꺼무퉈퉈하다
				가/까무속속하다, 거/꺼무숙숙하다
				가/까무끄름하다, 거/꺼무끄름하다

3. 희다

[표 23] **가. 명도, 선명도**

희다	명도	+	밝다	하얗다, 해/희끔하다
		-	어둡다	허옇다, 해/희끄무레하다, 해/읍스름하다
	선명도	+	뚜렷하다	하얗다/허옇다, 새하얗다/시허옇다
		-	흐리다	해/희끔하다, 해/희끄무레하다

4. 누르다

[표 24] **가. 명도, 채도, 선명도**

누르다	명도	+明	밝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르께하다, 누르께하다,
				노리끼리하다,누리끼리하다, 샛노랗다, 싯누렇다
		-明	어둡다	누르죽죽하다, 누르칙칙하다, 누르/퉁퉁하다
	채도	+純	맑다	노/누르스름하다,노/누르무레하다, 노/누르께하다
				샛노랗다, 싯누렇다
				노/누르끄름하다, 노/누리께하다,
				노르끄레하다, 노/누리끼하다,
				노/누름하다, 노리스름하다, 누리끔하다
		-純	탁하다	누르죽죽하다, 노/누르끄무레하다, 노/누르무레하다,
				노/누르끄무레하다, 노르튀튀하다, 누르테테하다
	선명도	+鮮明	뚜렷하다	샛노랗다, 싯누렇다, 노르스름하다
		-鮮明	흐리다	노르께하다, 누르께하다

5. 푸르다

[표 25] **가. 명도 채도, 농도, 선명도**

푸르다	명도	+明	밝다	푸르끼리하다, 파/포르스름하다, 퍼/푸르스름하다
				파/포르무레하다, 퍼/푸르무레하다, 파/포르께하다
				퍼/푸르께하다, 새파랗다/시퍼렇다
		-明	어둡다	파/포르족족하다, 퍼/푸르죽죽하다, 파/포르속속하다
				퍼/푸르숙숙하다, 푸르끼리하다
	채도	+純	맑다	파/포르스름하다, 퍼/푸르스름하다, 파/포르무레하다
				퍼/푸르무레하다, 파/포르께하다, 퍼/푸르께하다
				파랗다/퍼렇다, 새파랗다/시퍼렇다
		-純	탁하다	파/포르족족하다, 퍼/푸르죽죽하다, 파/포르속속하다
				퍼/푸르숙숙하다, 푸르끼리하다, 파/포르스름하다
	농도	+淡	묽다	퍼/푸르스름하다, 파/포르무레하다, 퍼/푸르무레하다
				파/포르께하다, 퍼/푸르께하다, 푸르끼리하다
		-淡	진하다	파랗다/퍼렇다, 파/퍼르속속하다
				퍼/푸르숙숙하다, 파/포르족족하다
				퍼/푸르죽죽하다, 새파랗다/시퍼렇다
	선명도	+鮮明	뚜렷하다	파랗다/퍼렇다, 새파랗다/시퍼렇다
		-鮮明	흐리다	파/포르께하다, 퍼/푸르께하다
				파/포르속속하다, 퍼/푸르속속하다

[표 26] 붉다

색상	ISCC-NBS색명법	먼셀표기법	색채어
고추색 (매우진한빨강)	Red Pepper (vivid red)	7.5R 3/12	붉다
피색(진빨강)	Blood (strong red)	2.5R 4/12	붉디 붉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빨강(매우진한빨강)	Red(vivid red)	5R 4/14	빨갛다 뻘겋다 벌그스레하다 벌그스름하다
분홍(진분홍)	Pink(moderate pink)		볼그무레하다
벚꽃색 (엷은 노랑띤 분홍)		10RP 8/6	벌그무레하다 발갛다, 벌겋다
회빨강 (밝은 회 빨강)	Grayish Red	2.5R 5/6	불그무레하다
연분홍색 (밝은 분홍)	Baby Pink (light pink)	2.5R 8/14	발그무레하다 발/빨그스레하다 발/빨그스름하다 뻘그스레하다 뻘그스름하다 발그속속하다
로즈핑크(진분홍)	Rose Pink (strong pink)	10PR 7/8	발그레하다 벌그레하다
회적색(회빨강)	Old Rose(grsyish red)	2.5R 5/6	발/빨그족족하다 발그댕댕하다 발그대대하다
꼭두서니(빨강)	Madder Red (moderate red)	5R 4/1	볼/불그스름하다 볼/불긋하다
황매화색 (짙은 분홍)	Yellow Maehwa Blossom (deep pink)	2.5R 5/6	불그레하다 불그스레하다 불그스름하다
마룬색 (어두운 빨강)	Marnet(dark red)	05R 3/6	불그죽죽하다

암적색 (매우 어두운 빨강)	Bordeaux(very dark red)	2R 2/4	뻘그죽죽하다
진분홍색 (짙은 자주띤 분홍)	Rose Marie (deep purplish pink)	7.5RP 6/10	빨그대대하다

비고 : 한국색채연구소에서 「우리말 색이름사전」을 바탕으로 색상과 먼셀표기법을 참고 하였다.
색채어는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과 「우리말 색이름사전」의 오방색 서술체계를 통해 색채어의 뜻을 참고 했다.

색채어의 어감의 차이에 따라 색은 미묘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색채어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어감의 느낌으로 차이를 느낄 뿐이다. 「우리말 색이름사전」에 있는 색과 색채어의 뜻을 참고하여 나누어 보았다.

모음 ㅏ:ㅓ의 대립에 의해 약(弱),강(强)을 나타나는 농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ㅗ:ㅜ의 대립은 크고 작음을 나타내며, 된소리는 더 강한 어감상 강한 느낌을 준다. '빨갛다, 뻘겋다'는 '발갛다, 벌겋다'보다 진하고 선명한 색이 떠오른다. '붉디 붉다', '새빨갛다', '시뻘겋다'는 '더할 수 없이 몹시 빨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색(진빨강)이다.

'발그레하다, 벌그레하다, 불그레하다'는 ㅏ<ㅗ<ㅓ<ㅜ의 순서로하여, '발그레하다<벌그레하다<불그레하다'의 순이다. '벌그레하다'와 '불그레하다'의 사전적 뜻은 '조금 곱게 벌그스름하다'이다. '-그레-, -스름-, -레-'는 고운 느낌을 주므로 '발그레하다, 벌그레하다'는 로즈핑크(진분홍)이다. '불그레하다'는 'ㅜ'가 음성모음이므로 어두움의 뜻이 있다. 로즈핑크(진분홍)보다 짙은 황매화색(짙은 분홍)으로 하였다. '-죽죽-'은 칙칙함의 어감을 가지므로 '불그죽죽하다, 뻘그죽죽하다'의 경우 어두운 빨강이다. '-무레-,-스름-, -속속-'은 진하지도 옅지도 않는 중간의 느낌이므로 연분홍색(밝은 분홍)으로 하였다. 애매모호한 색채어를 뜻과 어감, 색채어 표현설정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표 27] 검다

색상	ISCC-NBS색명법	먼셀표기법	색채어
검정	black	N1	가/까맣다 거/꺼멓다 검디 검다 새/샛까맣다 시/싯꺼멓다
검정(옻칠색)	Lamp Black	N1.5	거머번드르하다 거머번지르하다
검정(먹색)	Chinese Ink	N2	감다, 검다, 깜다
목탄색 (어두운 회색)	Charcoal Gray (dark gray)	N2.5	거/꺼무끄름하다 가/까무끄름하다 거무충충하다 거무죽죽하다 가무죽죽하다
회색	Gray	N5	까무스레하다 거무스름하다
쥐색(회색)	Mouse Gray(gray)	N5.5	까뭇하다 꺼무스름하다 꺼무스레하다 거/꺼무레하다
굴색(노랑띤 회색)	Oyster (yellowsih gray)	2.5Y 8/2	가마노르께하다 감노랗다 감노르다
두더지색 (갈색띤회색)	Taupe (brownish gray)	5YR 3/1	거무칙칙하다 까무칙칙하다
회자색 (빨강띤 회색)	Rose Gray (redddish gray)	5R 5/1	꺼무튀튀하다 가무퇴퇴하다
회갈색	light brownish gray	5YR 6/1	까무레하다

(밝은 갈색띤 회색)			
비둘기색 (자주띤회색)	Dove Gray (purplish gray)	5P 5/1	거무튀튀하다
은회색(밝은 회색)	Silver Gray (ight gray)	N7.5	거무스레하다 거무스름하다 거뭇하다
스카이 그레이 (밝은 파랑띤 회색)	Sky Gray (light bluish gray)	2.5PB 7/2	감파랗다 감파르다
아연색 (파랑띤 회색)	Lead Gray (bluish gray)	5PB 5/2	검푸르죽죽하다 검푸르접접하다
간장색 (빨강띤 검은색)	Soysauce (reddish black)	5R 2/1	검붉다

검은색은 무채색이므로 명도(明渡)만을 갖는다. ‘검다’의 색채어를 검정색만이 아니라 회색까지 나누었다. ‘새-,시-’는 색채의 짙음이 심함을 말하며 ‘샛-, 싯-’은 ‘더욱 더 짙은’의미를 강조해준다. ‘새/샛까맣다’, ‘검디 검다’는 ‘아주 짙게 까맣다’라는 뜻이며, ‘가/까맣다’, ‘거/꺼멓다’, ‘아주 검다’의 뜻이다. 검정은 아주 어두운 색이므로 구분할 수가 없어서 먼셀표기법으로 N1인 검정으로 하였다. 검정(옻칠색)은 광택이 나는 색 검정색이므로 ‘거머번드르하다, 거머번지르하다’등의 광택의 느낌이 나므로 N1.5가 된다. ‘-끄름-, -충충-, -죽죽-’은 칙칙하고 탁한 색의 어감을 주므로 목탄색(어두운 회색)이다. ‘-스름-, -레-’ 는 표현 설정 기준처럼 중간의 느낌으로 쥐색(회색)이다. ‘-튀튀-, -퇴퇴-, -칙칙-’ 어둡고 칙칙하고 탁한 의미 특성을 지닌다.

합성어인 경우 무채색을 우선으로 하였다. ‘가마노르께하다, 감노랗다, 감노르다’는 굴색(노랑띤 회색)이고, ‘감파랗다, 감파르다’는 스카이 그레이(밝은 파랑띤 회색), ‘검붉다’는 간장색(빨강띤 검은색)이다.

[표 28] 희다

색상	ISCC-NBS색명법	먼셀표기법	색채어
흰색(흰눈색)	White (Snow White)	N9.5	하얗다 새하얗다 시허옇다
흰색	White	N9	희다 허옇다 희말쑥하다 하야말갛다 희맑다 해맑다 해끔하다
진주색(밝은 회색)	Pearl(light gray)	N8.5	하/허여스름하다 하/허여스레하다
은회색(밝은 회색)	Silver Gray (ight gray)	N7.5	허여스레하다 허여스름하다
우유색(노랑띤 흰색)	Miiky White (yellowish white)	5Y 9/1	허여멀겋다
백상아색 (노랑띤 흰색)	lvory White (yellowish white)	10YR 9/1	하야무레하다
마늘색(노랑띤 흰색)	lvory Buff (yellowish white)	7.5Y 9/2	희누스레하다 희누스름하다
밍크색	Mink (yellowish gray)	5Y 8/1	희읍스름하다 희읍스레하다
흰색	White	N7	해끄무레하다
			희끄무레하다

‘해말갛다, 희멀겋다, 해/희맑다’는 ‘살빛이 매우 희고 윤기가 있게 맑다’로 풀이 되므로 명도가 높다. 흰색도 명도만을 갖는다. ‘하얗다, 새하얗다, 시허옇다’는 흰색(흰눈색)인 N9.5이다. ‘희다, 허옇다, 희말쑥하다, 희맑다’등은 N9이다. ‘하얗다’와 ‘허옇다’는 어감상 강, 약의 느낌이 난다. ‘허여멀겋다’는 희고 깨끗함을 나타내므로 우유색(노랑띤 흰색)이다. ‘희읍스름하다, 희읍스레하다’는 빛깔이 썩 깨끗하지 못하고 조금 희다의 뜻을 가진다.

[표 29] 누르다

색상	ISCC-NBS색명법	먼셀표기법	색채어
노랑 (매우진한노랑)	Yellow(vivid yellow)	5Y 5.8/16	노랗다 노르다
황금색 (짙은 등황색)	Golden Yellow (deep orange yellow)	10YR 6/10	누르다
노른자색 (매우진한노랑)	The Yolk of An egg (vivid yellow)	2.5Y 8/12	누렇다 뉘렇다
바나나색 (진한노랑)	Banana (strong yellow)	2.5Y 8/10	뇌랗다
해바라기색 (매우진한노랑)	Sunflower, Chrome Yellow (vivid yellow)	2.5Y 8/14	새노랗다 샛노랗다 누르디 누렇다
개나리색 (매우진한노랑)	Poreythia (vivid yellow)	5Y 8/14	시누렇다 싯누렇다
마른풀색(노랑)	Hay (moderate yellow)	5Y 8/6	노르무레하다 노르께하다
갈대색(회노랑)	Naples Yellow (grayish yellow)	2.5Y 7/4	누르무레하다 누르퉁퉁하다
황수선화색 (밝은 노랑)	Primrose Yellow (light yellow)	2.5Y 8.5/8	노르스레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릇하다 노름하다
땅콩색 (엷은 노랑)	Peanut(pale yellow)	2.5Y 8.5/4	누르스레하다 누르스름하다 누릇하다 누름하다
평지씨기름색 (어두운 노랑)	Oil Yellow (dark yellow)	5Y 6/6	노/누르끄레하다 노/누리끼리하다 누르께하다
모래색(회노랑)	Sand(grayish Yellow)	2.5Y 7/2	누르튀튀하다

			누르칙칙하다
황토색 (어두운 등황색)	Yellow Ocher (dark orange yellow)	10Y 6/8	누르테테하다 누리티티하다
브라운 올리브 (녹갈색)	Brown Olive (moderate olive brown)	2.5Y 4/4	누르죽죽하다 누/노르족족하다

‘노랗다, 노르다’는 노랑(매우진한노랑)으로 5Y 5.8/16으로 한국산업규격의 표준색이다. ‘새노랗다, 샛노랗다, 누르디 누르다’는 몹시 노랗다의 뜻이므로 해바라기색(매우진한노랑)이다. ‘누렇다, 노랗다, 뉘렇다, 뇌랗다’, ㅗ<ㅜ순서로 ‘노랗다’보다 ‘누렇다’가 진한 느낌이 난다. ‘뇌랗다’ 보다는 ‘뉘렇다’는 채도가 높지 않고 낮은 느낌이 나는 노랑이다. ‘노르무레하다’와 ‘누르무레하다’도 ‘ㅗ',‘ㅜ’는 각각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맑고, 탁함의 의미를 지닌다. 황수선화색(밝은 노랑)은 땅콩색(엷은 노랑)보다 채도가 높다. 전자는 2.5Y 8.5/8이고, 후자는 2.5Y 8.5/4이므로 채도에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누르튀튀하다, 누르테테하다, 누르죽죽하다’등은 칙칙하고 탁함의 느낌이 많이 나므로 채도가 낮다.

[표 30] 푸르다

색상	ISCC-NBS색명법	먼셀표기법	색채어
파랑(진파랑)	Blue(strong blue)	2.5PB 5/12	파랗다 퍼렇다 샛푸르다
남색(매우진한남색)	Purplish Blue (vivid purplish blue)	5PB 4/14	싯푸르다
코발트블루(진파랑)	Cobalt Blue (strong blue)	5PB 4/12	새파랗다 시퍼렇다
군청색(어두운남색)	Ultramarine (dark purplish blue)	7.5PB 2/6	시퍼렇다 푸르디 푸르다
감청색(진파랑)	strong blue	10B 5/12	샛파랗다
달개비꽃색(진파랑)	strong blue	2.5PB 5/10	파르대대하다 파르댕댕하다
파스텔블루 (밝은 파랑)	Pastel Blue (light blue)	2.5PB 6/6	푸르데데하다 푸르뎅뎅하다
하늘색(밝은 파랑)	Sky Blue(light blue)	2.5PB 6/8	푸르스레하다 푸르스름하다
물색(밝은 녹청)	Nile blue (light greenish blue)	5B 7/6	파르스레하다 파르스름하다
베이비 블루 (매우 엷은 파랑)	Baby Blue (very pale blue)	2.5PB 8/4	파르무레하다
녹회색(엷은 초록)	Mist Green (strong greenish blue)	5G 7/2	푸르무레하다
청옥색(진한 녹청)	Cerulean Blue (strong greenish blue)	5B 5/8	파릇하다
녹청색(진한 녹청)	Greenish Blue (strong greenish blue)	5B 5/10	푸르다
안개색(엷은 파랑)	Fog(pale blue)	7.5B 6/2	파르족족하다

감색(어두운 파랑)	Navy Blue(dark blue)	2.5PB 2/4	푸르죽죽하다
남회색(회파랑)	Steel Blue (grayish blue)	10B 4/4	푸르퉁퉁하다 푸르틱틱하다

‘파랗다, 퍼렇다’는 ‘매우푸르다’라는 뜻을 지닌다. 파랑(진파랑) 2.5PB 5/12이다. 새-, 싯-, 시-는 어감에 따라 짙고 푸름이 미묘하게 다르다. 접두사 ‘새-, 시-, 싯-, 샛-’은 색이 짙고 선명하며 채도가 높다. ‘샛푸르다, 싯푸르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새파랗다’는 각각 매우 짙고 파랗다는 의미를 지닌다.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에 따라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새파랗다’보다 ‘샛파랗다’가 어감상 거세고 강한 느낌으로 더욱더 짙음의 느낌이 난다.

‘ㅏ: ㅓ’,‘ㅗ:ㅜ’의 대립으로 농도의 차이를 보이며 ‘ㅏ: ㅓ’는 강:약, ‘ㅗ:ㅜ’는 크고 작다의 어감 차이를 나타낸다. 명도측면에서 ㅏ<ㅗ<ㅓ<ㅜ의 순서로 순위가 정해지므로 ‘파르스레하다, 파르스름하다’는 ‘푸르스레하다, 푸르스름하다’보다 엷고 밝음이 나타나고 ‘파르대대하다, 파르댕댕하다’의 2.5PB 5/10와 ‘푸르데데하다, 푸르뎅뎅하다’의 2.5PB 6/6을 보면 ‘ㅏ<ㅜ’이므로 색상은 비슷하지만 명도가 중간 정도고 채도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 ‘푸르다’는 하늘빛과 초록빛이 같은 색의 뜻을 나타내므로 녹청색(진한 녹청)이다. ‘-족족-, -죽죽-, -퉁퉁-, -틱틱-’은 어둡고 탁함의 의미특성을 지닌다.

결 론

본 연구는 색채어에 대한 연구로서, 우리말 색채어 '붉다', '검다', '희다', '푸르다', '누르다'를 대상으로 5가지 색이 쓰게 된 배경과 각 색의 상징들을 알아보고 색채 의식을 살펴보았다.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의 영향으로 오방색이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한민족의 색채관으로 자리 잡았다. 오방색은 생활상에 보여지며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기본 색은 훈민정음 창제에 영향을 준다. 기본 색채어의 어원과 문법적으로 형태소를 분석하여 색채어를 분류하여, 색채의 3속성으로 명도(明渡), 채도(彩度),농도(濃度), 광택, 선명도(鮮明)를 나누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기본 색채어는 무채색인 검정, 흰색이며, 유채색인 빨강, 노랑, 파랑으로, 다섯 가지 색으로 정립 되어졌다. 다섯 가지 색인 동양의 색채관의 배경은 고대 중국의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의 바탕으로 형성되어, 환경과 풍습, 문화로 인해 한민족의 색채관이 독창적으로 발전되어 자연과학적인 우주관에 바탕을 둔 오행의 道에 기인하였다. 다른 나라의 색채관은 고대의 이집트와 마야, 아리아인에 대해 알아보고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교도의 색에 대한 상징들을 알아보았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빨강'을 '죽음의 색'으로, 동양에서는 양(陽)의 색으로 추앙을 받았으며, '검은색'은 동양에서는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색이다. 유럽에서는 '노랑'을 싫어하는 색이지만 동양에서는 '노랑'을 '최고의 색'으로 생각한다. 각 나라마다 자연지리적 환경과 풍습, 문화로 인해 같은 색이라도 상징하는 색이 다름을 알 수 있다.

2. 한국의 색채관이 형성하게 된 역사적으로 알아보고 각 시대 마다 어떠한 색을 사용했는지 알아보았다. 음양오행적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신화에서도 음양사상이 나타난다. 의· 식· 주의 모든 생활 곳곳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적색, 황색, 갈색 등의 색깔이 사용되고, 백제는 흰색, 적색, 흑색, 청색, 황색이, 신라는 흑색, 주홍, 황색, 녹색, 백색, 청색 등을 사용하였다. 고려시대는 귀족문화발달로 인해 화려해 졌으며 금색을 사용 하였다. 조선시대에서는 소박미가 보이는 가운데 후기로 갈수록 건축의 색채는 다양해졌다.

3. 색의 삼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먼셀표색계를 기본으로 한 한국산업규격(KS)와 한국색채연구소(KCRP), 미국의ISSC-NBS에 대해 이론적 체계를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빨강(R), 노랑(Y), 초록(G), 파랑(B), 보라(P)의 다섯 가지 주요 색상과 주홍(YG), 황록

(GY), 청록(BG), 청자(PB), 적자(RP)의 다섯 가지 중간 색상을 더해서 P. YR. Y. GY. G. BG. B. PB. P. RP를 순서대로 10색상으로 하였다. 실용화된 색표는 5를 기준으로 하여 20색상환이다.

4. 색채어란 주위 환경이나 물체의 빛깔을 통한 색감각의 결정이며, 언어화된 약속으로서의 기호 역할을 하게 된다. 색은 무수히 많으나 언어 체계가 갖는 한계가 있으므로 언어의 내재적 요소에 의해 하나의 빛깔이 다채롭게 표현 될 수 있다. 색채어의 다양한 발달은 인간의 인지의 발달을 의미하며 문화 · 문명이 발달할수록 언어로써 색깔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단어를 창조하게 된다.

5. 색채어의 어원은 '검다'는 '그을음, 밤(夜)>검다(黑)', '희다'는 '해(日)는 희다(白)', '붉다'는 '불(火)>붉다(紅, 赤)', '푸르다'는 '풀(草)>푸르다'로, '누르다'는 '흙>노랗다'이다.

6. 색채어는 규칙적인 음운 형상을 보이고 있다. 접미 파생이 있는 파생 어형으로 인해 어감의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모음 ㅏ:ㅓ, ㅗ:ㅜ의 대립은 약(弱),강(强)과 크고 작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감과 인상의 차이를 가져온다. ㅏ<ㅗ<ㅓ<ㅜ의 순서로 순위를 정했으며, 접두사 '새-/샛-/시-/싯-'의 결합은 모음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음운론적 제약을 갖으며, 새-,시-는 색채의 짙음이 심함을 말하며 [+명도][-어둠], 시-의 경우[-명도][+어둠]을 나타냈다. '새/샛-'과 '시/싯-'은 정도보다 심함을 나타내며, '새/샛-'은 매우 선명하고 산뜻함, '시/싯-'은 매우 심하게 짙음을 나타낸다.

'붉다, 검다, 희다, 푸르다, 누르다'로 이들 중심으로 표현 설정하였다.

합성법은 '검붉다, 검푸르다, 희붉다'등이 있으며, 무채색과 유채색의 기본어가 합성인 경우 무채색을 우선으로 하고, 유채색과 유채색의 경우 채도가 높은 쪽이 낮은 쪽보다 먼저 우선하게 된다.

접사가 끝에 음운이 오는 접미사 같은 경우 '-테테-, -태태-, -퇴퇴-, -튀튀-, -티티-, -틱틱-' 우중충한 느낌과 색의 짙음을 나타내며, 낮은 채도, 탁함을 뜻한다.

'-칙칙-'은 산뜻하지 않음의 부정의 의미를 두며, 채도가 낮다. '-숙숙-. -속속, -슥-'은 '수수하고 걸맞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긍정의 느낌을 가진다. '-스름-, -스레-, -레-, -름-'은 긍정의 느낌을 주며 '-레-'는 고운 느낌을 지니고 있다. '-잡잡-, -짭짭-'의 경우 [-칙칙함], [+연함]을, '-접접-, -쩝쩝-'은 [+칙칙함], [-연함]을 뜻을 지닌다. '-족족-, -죽죽-'의 경우 [-명암], [-순도], [-옅음]으로 표현 설정하였다.

7. 색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를 색채어의 어감과 관념적으로 떠오르는 색으 분류하였다. 명도는 명도(明)으로 하여 +明, -明, 채도는 +맑음(純), -탁함(純)으로 하고, 농도 +淡, -淡, 선명도는 선명(鮮明)을 +鮮明, -鮮明으로 하였다.

8. 먼셀 표색계와 한국산업규격(KS)과 한국색채연구소(KCRP), 미국의ISSC-NBS를 바탕으로 우리말 색채어인, 색채형용사를 표로 작성하였다.
<표 26~30>를 참고 하면 된다.

우리말 색채어는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체계화하지 못했다. 과거 잠깐 색채형용사를 연구되어졌으나 현재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산업규격(KS)과 한국색채연구소(KCRP)같은 경우, 연구 되어지고 우리나라에 맞는 색채를 영어로의 색이름이 아닌 쉽게 알 수 있도록 색이름을 2003년도에 개정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고유어인 색채어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색은 언어화된 기호체계라 각 나라마다 같은 색일지라도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색채를 기호화 한다는 것의 어려움이 있고 관념 속에 있는 색채를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색채표현은 다른 언어의 경우 찾아보기 힘들다. 색채어는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언어체계이며 색채형용사가 사용됨으로 언어에서 풍부한 어휘와 일상적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쓰일 수 있는 색이름을 색채형용사를 체계화하여 쓰인다면 사람들마다 관념화된 기억색이 약간씩은 달라도 쉽게 색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색명과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먼셀색상을 색채어와 대응 시킨다면 한민족의 색채관과 서양의 색채관이 어울려져 각 개인의 색의 인지 차이를 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비하게나마 색채어를 기호화하여 먼셀색상과 대응 시켜보려고 하였으나 색채어의 특성상 어느 한 색으로서 정의 내릴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관념 속에서의 색상이 달라 기호화하는데 힘들었다. '수만가지의 색상이 이것이다'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색채어는 하나의 '붉다, 검다, 희다, 푸르다, 누르다'와 같이 하나의 색을 표현한 것도 있지만, 대상에 쓰이는 '까마무트름하다, 까무잡잡하다, 허여맑갛다, 희멀겋다, 발그레하다, 불그스름하다, 푸르댕댕하다' 등과 같은 것은 '어느 색이다'라고 지정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 이러한 문제점과 다른 나라와의 색채어와의 비교· 검토의 연구 작업을 통해 우리말 색채어에 대한 연구 업적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고윤기, 『삼국유사』(홍일출판사, 2001)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2000)
김융희, 『검은천사 하얀악마(검정과 하양의 문화사)』(시공사, 2005)
김융희, 『빨강』(시공사, 2005)
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사계절, 2000)
문은배, 『색채의 이해와 활용』(안그라픽스, 2005)
박은주, 『색채조형의 기초』(미진사, 2004)
박현일, 『색채학 사전』(국제출판, 2004)
박해진,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 단청』(현암사, 2004)
박혜원, 『색 읽고 보는 눈』(양지, 2002)
서광선, 『종교와 인간』(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76)
신항식, 『색채와 문화 그리고 상상력』 (프로네시스, 2007)
에바헬러, 『색의 유혹』이영희(역), (예담, 2002)
윤혜림, 『색채지각론과 체계론』(국제, 2008)
이재만, 『한국의 색』(일진사, 2005)
장효정, 『하룻밤에 읽는 삼국사기』(랜덤하우스 중앙, 2004)
최영훈, 『색채학 개론』(미진사, 1985)
최영훈, 『색채의 원리와 활용』(미진사, 2004)
최춘식, 『 한국미 그자유분방함의 미학』(효형출판, 2003)
파버 비렌, 『색채심리』(동국출판, 1995)
풍우란, 『중국철학사』(세음사, 1975)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명지출판, 1989)
한국색채학회, 『色이 만드는 미래』(국제출판, 2002)
한국 표준연구소 감수, 『실용 한국 표준 색표집』(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 1992)
Breaem Harald, 『색깔의 힘』, 김복희(역), (유로서적, 2002)
KBS 한국연구소, 『우리말 색이름 사전』, (1991)

◉ 학위 논문

고재근, “한국 전통회화에 나타난 색채연구: 오방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 1999)
김아영, “한국인의 빨강에 대한 감성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대학원, 2003)
김옥랑, “색채의 우리말 표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양대 교육대학원, 1986)
나혜석, “우리말 색채어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교육대학원, 1995)
박미연, “서구 복식에 나타난 녹색과 그 상징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2003)
박재연, “한국인이 선호하는 청색에 관한 연구-생활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산업대학원, 2006)
양지현, “색채 감성언어 표현과 전달을 윟나 색이름 교육방안 고찰-색의 공감각적 이미지 표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 교육대학원, 2005)
윤기한, “현대국어 색채어의 의미 확장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남대 대학원, 2006)
음정선, “한국과 일본의 전통색채관과 복색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대학원, 2005)
정소연, “동양의 색채개념에 의한 상징적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1996)
정진주, “우리말 색채어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대학원, 1990)

◉ 계속간행물

정필순, 현대적 조형미의 조각보, 월간공예, (1990. 9)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학 번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주소					
연락처	E-MAIL:				
논문제목	한글 : 영문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년 월 일

저작자: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